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陸游詞의 史的一瞥과 題材運用 考察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姜承希

陸游詞의 史的一瞥과 題材運用 考察

指導教授 林 東 春

姜 承 希

이 論文을 中文學 碩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20 년 08 월

姜承希의 中文學 碩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大學院

2020 년 08 월

目 次

【국문 요약】	ii
I. 序論	1
1. 研究 目的	1
2. 研究 方向	4
II. 北宋 文인의 詞 창작과 陸游 詞의 경향성	7
1. ‘以詩爲詞’로의 변화	7
2. 詞 인식의 이중성	17
III. 陸游詞의 體裁 分類	26
1. 時局	26
2. 孤獨과 望鄉	30
3. 道家山水	34
4. 季節	41
IV. 結論	51
參 考 文 獻	53
【ABSTRACT】	55

陸游詞의 史的一瞥과 題材運用 考察

姜 承 希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指導教授：林 東 春)

【국문 요약】

본 논문은 宋代 문인 陸游와 당대 사대부들의 詞에 대한 인식 변화를 비교하며 陸游의 작품에서 그의 詞 인식이 어떠한 제재를 통해 표현되는지를 분류,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南宋과 北宋 문인들의 작품과 평론에서 드러나는 詞에 대한 인식과 陸游의 詞에 대한 인식을 고찰한다.

둘째, 陸游의 詞에 운용한 제재를 時局, 孤獨과 望鄉, 道家思想, 季節로 분류하여 그의 詞 인식이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연구한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宋詞에 대한 인식은 北宋 시기에 ‘詩餘’라는 인식에서 文雅性을 중시하게 되며 독립적인 문학 양식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 시기 詞壇은 ‘以詩爲詞’의 詞 짓기와 ‘別詩一家’설이 대립한다. 南宋 시기 외세의 침략으로 문인들은 애국적인 작품을 창작하였으나 詞의 유희성과 오락성에 한하여 이중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陸游는 사대부로서의 소명의식을 기본으로 유희성, 오락성뿐만 아니라 문학의 역할과 사대부의 시대적 소임을 詞에 담아내는 것을 강조하며 ‘詞의 詩化’를 추구하였다.

둘째, 陸游는 완약하고 유희적인 詞 문학을 영유하면서도 南宋 초기 시대의 비극을 담은 제재를 통해 憂國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었다. 또한, 시대의 비극에 인간의 능력에 대한 유한성을 깨닫고 도가의 무위자연 제재를 운용하기도 했다. 또한, 계절을 이용한 제재

에도 문인의 정서를 투영하였다. 곧 陸游의 詞에 대한 인식은 그의 시대정신과 감정을 다양한 제재로 투영하여 ‘詞의 詩化’를 이끌어 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陸游가 기존 詞人들이 유희적으로 인식하던 詞에 시대정신을 반영하며 ‘詞의 詩化’를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그 문학적 의미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陸游, 宋詞, 以詩爲詞, 題材, 憂國詞, 詞認識,

I. 序論

1. 研究 目的

陸游(1125~1209)는 자가 務觀, 호는 放翁이며 南宋시기 山陰 출신이다. 南宋 四大家의 한사람으로 南宋의 시단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中國의 대표적인 憂國詩人이다.

陸游는 격변의 시기인 北宋과 南宋 교체기에 태어나 紹興 23년(1153) 진사시험에 응시했으나 主和派인 秦檜의 계략으로 낙방한 뒤 그가 세상을 뜨고 나서야 紹興 28년(1158) 福州 寧德縣 主簿로 임명되어 관직생활을 시작한다.¹⁾ 그 후 紹興 30년(1160) 勅令所 刪定官으로 조정에 들어와 孝宗 즉위 후 樞密院 編修官과 編類聖政所 檢討官을 겸임하였다. 북벌의지가 강했던 孝宗의 즉위와 함께 陸游는 중원을 회복할 北伐論을 주장하며 張浚의 북벌군을 지지했다. 하지만 張浚의 북벌군이 금군에 대패하며 南宋 조정은 主和派가 득세하게 되고 陸游는 鎮江 通判으로 좌천된다. 관직 초기인 이 시기에 그의 작품에는 이루지 못한 북벌에 대한 열망이 녹아있다. 예를 들어 그가 鎮江으로 좌천된 후 지은 詞 <水調歌頭·多景樓>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江左占形勝，最數古徐州。

連山如畫，佳處縹渺著危樓。

鼓角臨風悲壯，烽火連空明滅，往事憶孫劉。

千里曜戈甲，萬灶宿貔貅。 …하략…

江東은 형세가 빼어난 곳, 그 중 옛 서주가 가장 손꼽히네.

산은 이어져 그림과 같고, 아름다운 곳에 높다란 누각 아련히 솟아있네.

북소리 호각소리 바람에 실려 비장하고, 봉화는 하늘에 이어져 명멸하는데, 손권과 유비의 지난 일 생각하네.

천 리에 창과 갑옷은 빛나고, 만개의 부뚜막엔 용맹한 병사들이 주둔했으리.²⁾

1) 楊慧琴, 「陸游詞研究」, 貴州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

당시 鎭江은 금과 대치한 최전선이며 三國志에서 孫權과 劉備가 대치한 곳이기도 하다. 陸游는 詞를 통하여 多景樓에서 내려다 본 長江 이북의 전운이 감도는 풍경을 묘사하며 과거를 회상하고 북벌에 대한 강한 열망을 나타낸다.³⁾ 이후 陸游는 隆興 通判으로 부임하며 南昌으로 떠나지만 乾道 2년(1166) 탄핵되어 고향 山陰으로 돌아온 후 4년간 머물고 이후 夔州通判으로 임명되어 蜀으로 떠난다. 乾道 8년(1172) 王炎의 부름을 받고 南鄭에 도착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정이 主和派에게 장악되며 王炎은 臨安으로 소환되고 막부는 해체되어 陸游의 북벌을 향한 뜻은 끝내 좌절되고 만다. 이 시기 陸游는 南鄭 막부생활을 그리워하며 공업을 이루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다. 그는 南鄭, 成都, 嘉州, 榮州 등지에서 지방관을 역임하다 淳熙 5년(1178)에 蜀을 떠나 臨安으로 소환되어 관직생활을 이어오다 淳熙 16년(1189) 禮部郎中겸 實錄院 檢討官을 역임하였다. 이 때 陸游는 光宗에게 군대를 정비하여 중원을 되찾자고 건의하지만 主和派의 시기를 받아 오히려 “吟詠專嘲風月(시문을 읊으며 오로지 풍월을 조롱하다)”라는 죄명으로 탄핵을 받아 65세 되던 해인 淳熙 16년(1189)에 면직되어 고향인 山陰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후 嘉泰2년(1202) 孝宗과 光宗의 實錄 편찬을 맡은 것 이외에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여생을 山陰에서 지내다 嘉定 2년(1209)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陸游는 詩, 詞, 散文 등 여러 방면에 문학작품을 남겼는데 그 중 『劍南詩稿』에만 총 9,136수의 시가 실려 있다. 그에 반해 陸游의 詞는 『渭南文集』에 포함되어 권 49, 50에 『放翁詞』라는 이름으로 총 130여수가 수록되어 있으며 따로 전하는 작품까지 포함하면 145수가 전해진다.⁴⁾ 이처럼 육유의 詞는 詩에 비해 작품 수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詩에 비해 詞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국내의 연구 현황을 보면 단행본은 이치수의 『陸游詞選』⁵⁾, 주기평의 『陸游詞』⁶⁾ 2권이 출판되었고, 관련 학술논문은 이치수의 「문학(文學) : 陸游(陸遊) 사(詞)의 대비(對

2) 주기평 역해, 『陸游詞』, 학고방, 2015, 12~15쪽.

본 논문의 원문은 夏承燾·吳熊和의 『放翁詞編年箋注』(상해고적출판사, 1981)이며 주석과 해석은 주기평의 『陸游詞』(학고방, 2015)를 참고하였다. 이 후 인용하는 육유의 작품과 해석은 위의 책을 따름으로 다시 각주처리하지 않는다.

3) 위의 책, 12~15쪽.

4) 위의 책, 서문 6쪽.

5) 이치수, 『陸游詞選』, 지식음만드는지식, 2011.

6) 주기평 역해, 『陸游詞』, 학고방, 2015.

비) 수사법(修辭法)⁷⁾, 주기평의 「陸游詞의 주제 및 창작관에 대한 고찰 - 시(詩)와의 비교를 중심으로」⁸⁾와 「陸游詩詞比較研究」⁹⁾가 있다. 그 중 주기평의 「陸游詩詞比較研究」는 작품 주제를 田園閑寂, 男女艷情, 寫景詠物, 交遊, 기타로 분류하고 이를 시기별로 통계를 내어 도표화함으로써 육유 詞 창작의 경향성을 고찰하고 있다.¹⁰⁾ 중국 내에서는 陸游의 詩詞 비교연구를 제외하면 학위논문인 楊慧琴의 「陸游詞研究」¹¹⁾, 李廣瑩의 「陸游隱逸詞研究」¹²⁾의 4편, 학술논문은 총 119건¹³⁾이 발표되었다. 학위논문 중 楊慧琴의 「陸游詞研究」에서는 陸游의 詞를 주제, 풍격, 시기별 특징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였고, 李廣瑩의 「陸游隱逸詞研究」¹⁴⁾에서는 山陰 유거시기 작품들을 대상으로 해당 작품의 주제와 표현방법에 주목하였는데, 그 중 출현빈도가 많은 단어들을 추출하여 意象¹⁵⁾을 분류함으로써 陸游 詞의 작품 특성을 설명해내었다. 그 시기 작품에서 보이는 意象의 특징은 자연의 풍류와 세속의 구속되지 않는 삶이 道家遊仙詞와 山水田園詞로 표현되는데 그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山陰 유거시기 陸游의 詞는 풍류와 방종으로 귀납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후에 발표된 학위논문들은 특정 시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 고찰 또는 情詞 연구로 국한되어 있고, 학술논문은 국내에 비해 많지만 그 중 대다수가 詩詞비교 연구이며 CNKI에 陸游詩 연구가 3000여 편 이상 등록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陸游 詞에 대한 다양한 방면의 고찰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재를 중심으로 陸游 詞의 특징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서는 陸游에게서 나타나는 ‘詞’라는 글쓰기에 대한

7) 이치수, 「문학(文學) : 陸游(陸遊) 사(詞)의 대비(對比) 수사법(修辭法)」, 『중국어문학』 제57권, 2011.

8) 주기평, 「陸游詞의 주제 및 창작관에 대한 고찰 - 시(詩)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국문학』 제30권, 1998.

9) 주기평, 「陸游詩詞比較研究」, 『중국문학』 제84권, 2015.

10) 앞의 글, 29~30쪽.

11) 楊慧琴, 「陸游詞研究」, 貴州大學 碩師學位論文, 2009.

12) 李廣瑩, 「陸游隱逸詞研究」, 河北大學 碩師學位論文, 2014.

13) CNKI 中國知網, <http://www.cnki.net/>

14) 李廣瑩, 「陸游隱逸詞研究」, 河北大學 碩師學位論文, 2014.

15) 인류 초기의 예술사유는 모두 간단하고 개별적이며 구체적인 사물들과 연결되었다.('의상'의 단계) 그런 뒤 문예작품이 외부환경을 재현함에 있어서 비교적 복잡하고 총체적인 인식과 구상의 단계로 서서히 이르게 되었고,('의경'의 단계) 또 현실생활의 본질에 대한 탐구와 표현의 단계로 발전하였다(陳植鏗 著, 임준철 譯, 『중국시가의 이미지』, 한길사, 2013. 112쪽).

'의'는 작가의 주관을 가리키고 '상'이나 '경'은 객관세계를 가리킨다. 양자는 '의상'·'의경'이란 용어의 개념에 본래 있는 의미로, 단지 이 점만으로도 두 가지 설로 대표되는 중국 고대 문론의 민족적 특징과 외래 문예론과의 차이를 짐작할 수 있다. 서로 연관되는 면이 있다는 것은 '의경'설이라는 미학범주가 '의상'설보다 늦게 생겨났고, 또 '의상'설의 기초 위에 형성되고 발전된 것임을 가리킨다.(陳植鏗 著, 임준철 譯, 『중국시가의 이미지』, 한길사, 2013. 110쪽).

인식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2. 研究 方向

陸游詞에 대한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인의 작품과 그에 대한 인식을 시기별로 분류하거나 多作詩人 陸游의 詩와 詞를 비교하는 논문이 대부분이다. 각론으로 들어가도 작품에 쓰인 개별 사물이나 일부 자연 경물에 대해 분석하고, 시기별로 분류하는 것에 한정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陸游 詞의 제재를 분석하여 문인 陸游의 詞에 대한 인식과 당대 사대부들의 詞에 대한 인식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北宋에서 南宋으로 교체되는 시기에 주제와 제재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로 인하여 당대 문인들의 詞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고찰하고자한다. 그리고 현재까지 陸游詞를 연구해 온 방법을 빌어 陸游詞의 詞語를 제재별로 나누어 분류하겠다. 앞서 연구 현황에서 밝혔듯 陸游의 詞를 시기별로 분석하는 논문들은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陸游의 詞에서 憂國에 대한 제재는 생애 전반에 걸쳐 등장하고 道家山水에 대한 제재는 山陰 유거 시절에 다수 나오기는 하지만 유거 시절로만 제한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陸游가 山陰 유거시기에 쓴 <訴衷情·當年萬里覓封侯> 하편에서는 ‘오랑캐 아직 소멸되지 않았는데, 귀밑머리엔 가을 서리 먼저 내리니 부질없이 눈물만 흐르네(胡未滅, 鬢先秋, 淚空流.)’라며 금국 정벌의 꿈을 이루지 못해 비분강개하며 공허하게 흘러간 세월을 아쉬워한다. 또한 관직시기에 탄핵 되었을 때 쓴 <鷓鴣天·家住蒼煙落照間> 상편에서는 ‘옥해주 다 마시고선 대나무 헤치며 거닐고 『黃庭經』 다 읽고선 드러누워 산을 보네(斟殘玉瀣行穿竹, 卷罷『黃庭經』臥看山)’라며 도가 경전인 황정경을 사용하여 세속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 술과 자연, 양생의 책을 벗 삼아 살고 있는 달관한 시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陸游가 살던 南宋 교체기 당시 시국이 그의 작품에서 어떠한 제재로 나타났고, 道家思想을 반영한 제재는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이 그의 詞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 외에도 자연현상을 이용한 제재를 작품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시가의 제재를 계절별로 분류하는 것은 작품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연구 방법론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唐詩三百首』에 수록된 작품들을 분석한 통계에서 봄과 가을이 각각 76회와 59회 쓰이고, 여름과 겨울이 각각 2회와 1회 쓰인 것을 근거로 당시의 계절을 이용하는 제재는 봄과 가을 위주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¹⁶⁾ 물론 이러한 사실은 『唐詩三百首』 국한된 분석인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가설이 다른 시기, 다른 시인의 시가작품에도 해당될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陸游詞의 詞語를 北宋 교체기 시국을 반영한 제재, 道家적 사상을 반영한 제재, 자연현상을 이용한 제재로 분류하여 陸游의 인생 전반에 걸친 憂國에 대한 제재와 현실과 타협하며 쓰기 시작한 山水道家, 그의 작품 전반에서 자주 등장하는 계절로 분류하여 고찰해보겠다.

본 논문의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陸游 詞에서 운용하는 제재를 분석하기 이전에 당시 문인들은 詞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떠한 제재를 활용하여 작품을 표현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1절에서는 南宋이전 唐에서 五代, 北宋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문인들의 詞에 대한 인식 및 ‘詞’라는 글쓰기의 운용과 표현 방법의 대강을 고찰하고, 2절에서는 金에 패배한 南宋 시기 문인들이 詞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과 詞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당시 논란이 되었던 詞의 ‘本色論’과 ‘以詩爲詞’, ‘以文爲詞’에 관한 당대 사대부들의 인식과 당대 사대부들의 詞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들과 陸游의 詞 인식에서 나타나는 차이점 및 공통점들을 규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런 후에 陸游詞의 제재별 운용에 관해 고찰한다. 陸游의 작품에는 전장, 천둥, 막사 등 비장함과 나라를 잃은 비분강개가 표현되어 있으며, 동시에 이루지 못한 공업에 대한 아쉬움과 타향살이에 대한 그리움을 기러기와 봄 제비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그의 관직시기부터 그가 山陰에서 유거하는 시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일관되게 드러난다. 시국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은 金에 대한 적개심과 憂國에 대한 비분강개가 드러나는데, 때로는 과거에 대한 영광과 회환, 불명예스러운 화의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며 그의 詩에서 나타나듯 憂國의 주제를 담고 있다. 道家思想이 반영된 작품들은 이루지 못한 공업의 아쉬움을 표현하며 피리, 물고기, 호숫가 등으로 전원생활의 여유로움과 團扇, 丹藥, 西王母 등의 道家적 제재를 표현하여 과거에 이루지 못한 공업 또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지하며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陸游는 이러한 심리

16) 陳植鏗 著, 임준철 譯, 『중국시가의 이미지』, 한길사, 2013, 615쪽.

적 변화를 작품에서 다양한 제재에 투영하여 南宋 초기 憂國에서 비롯된 비분강개의 사
풍을 이어받는 한편 중원수복과 抗金의 좌절을 다양한 제재를 활용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2장에서 언급한 宋代 사대부들의 詞에 대한 인식과 陸游의 인식에서 나타
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고찰과 陸游의 실제 詞 작품의 제재별 구현 양상을 통해
陸游 詞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탐구할 것이다.

II. 北宋 문인의 詞 창작과 陸游 詞의 경향성

1. ‘以詩爲詞’로의 변화

詞는 詩와 같이 『詩經』과 그 근원을 같이하는 운문문학이지만 詩가 『詩經』의 전통을 이어받아 詩律이 엄격한 근체시로 발전한 것과는 다른 모습을 띤다. 詞는 음악과 어울려 지어져 曲子라고도 불리며 漢代 樂府와 같이 詞 또한 노래의 가사라 하여 樂府라고도 불리었다. 또한 시와 달리 구형이 자유롭다는 이유로 長短句라고 불렀고, 시를 짓고 난 후 남은 여가에 짓는 것이라 하여 詩餘라고 쓰기도 했다.

『詩經』 이후로 민간가요는 여러 시대를 거치며 무역의 발달로 西域 계통의 음악이 수입되며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여 唐代에 이르러서는 燕樂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당시 사대부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문인들도 민간가요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¹⁷⁾ 그 후 詞는 中唐에 이르러 문인들이 詞를 적극적으로 창작하기 시작하며 晚唐, 五代를 거쳐 宋代를 대표하는 문학으로 자리 잡았다. 詩가 사대부들의 전유물이었다면 詞는 귀족과 문인들부터 기녀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계층에 상관없이 지어졌고 신분을 막론하고 유행했다. 이러한 사실은 후대에 기록되어 전해지는데 宋代 葉夢得의 『避暑錄話』에는 “샘물을 마시고 있는 곳이면 柳永의 詞를 노래하였다.”(凡有井水飲處,即能歌柳詞)¹⁸⁾라고 기록되어있어 그 당시 宋詞의 유행을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宋代 초기 사대부 문인들의 詞에 대한 인식은 詩에 대한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 詞의 시작이 민간가요 형태로 발전하여 俚俗性이 짙었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에서 유행하기는 했으나 당시 문인들은 詩는 『詩經』의 전통을 이어받아 당대의 시대정신과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목적으로 창작되어야한다고 생각하여 詩 창작을 높이 평가한 반면 詞의 창작에 대해서는 유

17) 김학주 著, 『중국문학사』, 신아사, 1989년 175쪽.

18) 위의 책, 181쪽에서 재인용.

葉夢得 『避暑錄話』: “凡有井水飲處,即能歌柳詞”

회적이며 연회에서 즐겨지어지는 것으로 여겼다. 또한 그 시적이 민간가요이기 때문에 시와는 다른 인식을 가지고 창작에 임했을 것이다.

北宋 시기 詞는 北宋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 새로운 왕권이 세워진 후 사회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발전하며 송사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당시 詞의 성행을 이끈 대표적 문인으로는 晏殊, 晏幾道 부자와 서곤체에 반대하며 시문혁신운동을 일으켰던 歐陽修가 있다. 歐陽修의 詞는 晏殊부자와 마찬가지로 晚唐·五대의 溫庭筠의 완약한 花間派의 사풍을 이어나간다. 이는 곧 당시의 詞 작품들은 일회적이고 단순한 쾌락이나 酒興을 북돋우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양수는 <採桑子>의 서문 <西湖念好>에서 이렇게 언급한다.

所有雖非于己有, 其得已多. 因翻舊闕之辭, 寫以新聲之調, 敢陳薄伎, 聊佐清歡.

이 모든 것이 비록 나의 소유는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미 충분하다. 그리하여 예전의 가사를 뒤적여 새로운 노래를 써내니 감히 작은 재주를 펼쳐 그저 청아한 즐거움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¹⁹⁾

당시 사대부들에게 詩 창작은 앞서 말했듯 당대 시대정신의 투영과 우민을 깨우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위 예시처럼 ‘감히 작은 재주를 펼쳐 그저 청아한 즐거움에 보탬이 되고자한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구양수가 詞를 창작하던 태도는 詩와는 달리 단지 노래를 듣는 자들의 즐거움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노래를 듣는 자들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글을 짓는 문인의 사유를 담은 詩문학과는 확연히 다르다. 또한 이는 향유자가 존재한다는 詞의 상업적인 면을 간과할 수 없다. 당시 靑樓의 성행으로 유흥문화가 발달하며 소비층이 생겨나 민간의 선호를 받아들여 글을 짓고 樂工과 歌妓라는 매개체를 통해 향유자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개체가 歌妓라는 이유로 남성문인이 창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적인 정서가 부각되는 것이다. 宋代의 또 다른 문인 晏殊의 작품 중 <踏莎行>를 살펴보도록 한다.

小徑紅稀, 芳郊綠徧, 高臺樹色陰陰見. 春風不解禁楊花, 濛濛亂撲行人面.
翠葉藏鶯, 朱簾隔燕, 鑪香靜逐游絲轉. 一場愁夢酒醒時, 斜陽卻照深深院.

19) 박홍준, 「북송(北宋) 사학(詞學)의 전개와 사체(詞體) 관념(觀念)의 형성」, 『中國學報』 85권, 2018. 4쪽.

오솔길 가엔 붉은 꽃 드물어지고, 향기로운 들에 녹음 덮히니, 높은 누대까지도 나무 빛깔 짙어만 간다. 봄바람은 머들 숨 붙잡아, 자욱하게 날려 행인 얼굴 어지러이 부딪치네.

푸른 나뭇잎 속에는 피꼬리, 주렴 밖에는 제비, 향로의 향은 고요히 아지랑이 따라 돌고. 한바탕 시름 섞인 꿈에 술 깨어 가는데, 지는 햇빛 깊숙한 뜰 안을 비치고 있네.

위의 작품은 서정적이고 여성적 감성을 표현하고 있다. 歐陽修의 작품 <生查子>도 晁殊와 같이 완약한 정서를 이어가고 있다.

去年元夜時，花市燈如畫，月上柳梢頭，人約黃昏後。

今年元夜時，月與燈依舊，不見去年人，淚濕春衫袖。

지난 해 보름밤에는, 화려한 저작거리의 등불은 대낮 같았는데, 달은 버드나무 가지 위로 떠오르고, 우리는 해진 뒤에 만나기로 약속했지.

올해 정월 보름밤도, 달과 등불은 예나 다름없는데, 지난해의 그이 보이지 않으니, 눈물이 봄 옷 소매 적시네.

위 작품 상편에서는 화려한 도시의 풍경과 해진 뒤 만나기로 약속한 젊은 연인의 염정을 표현하고 하편에서는 이별에 대한 애절한 정서를 노래한다. 이렇듯 구양수의 詞는 詩와는 다르게 여성적이며 애절한 감상과 가벼운 서정을 위주로 하고 있다.²⁰⁾ 또 다른 예로 歐陽修의 <蝶戀花>를 들 수 있다.

幾日行雲何處去。忘了歸來，不道春將暮。百草千花寒食路。香車繫在誰家樹。

淚眼倚樓頻獨語。雙燕來時，陌上相逢否。撩亂春愁如柳絮。依依夢裏無尋處。

며칠을 구름처럼 어디로 떠도는가, 돌아올 것도 잊고, 봄이 저무는 것도 모르네. 한 식이라 길가에 온갖 화초 피었는데, 향기 나는 수레는 뉘 집 나무에 매어놓았는가.

눈물 글썽이며 누각에 기대어 자주 혼잣말 하네. 쌍쌍이 나는 제비야 날아올 때 길에서 내 입을 보았느냐. 봄날 시름은 머들 숨처럼 어지러이 일고,

20) 김학주 저, 『중국문학사』, 신아사, 1989년, 296~299쪽.

송시의 특징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미려한 형식보다는 작품의 내용표현과 문장의 기세와 풍격을 더 존중한다. 그 예로는 歐陽修의 <感二子>를 예로 들 수 있다. 작품에서 歐陽修는 자신의 사상과 사회적인 문제 등을 시로 썼다.

못내 그림건만 꿈에서도 찾을 길 없어라²¹⁾

위의 작품은 상편과 하편에서 모두 떠난 입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여인의 애절한 심정을 표현한 <生査子>와 같이 北宋 초기를 대표하는 세 명의 詞人은 모두 唐·五代의 花間派의 완약한 사풍을 이어가며 기존의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小令이 주된 형식이었던 北宋 초기를 지나 北宋 중기에는 만사가 성행한다. 당시 宋은 사회가 안정되고 도시의 발달로 부유한 시민계층이 등장하며 거리에는 勾欄과 瓦肆가 성행하게 된다. 이전 소령이 귀족들의 유희를 위한 문학이었다면, 만사는 宋代 도시경제의 발달에 따른 도시 시민계층의 생활을 반영하는 문학이었다. 이 시기 대표적인 문인으로는 柳永과 張先이 있다. 北宋 초기 문인 3인이 고관 관료이었던 것과 달리 장선은 낮은 벼슬밖에 못하였고, 柳永은 벼슬길에 오르지도 못했다.²²⁾ 특히 柳永은 당시 민간의 樂工이나 歌妓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곡조에 맞는 가사를 창작하기도 하였다.

柳永, 字耆卿, 爲舉子時多游狹邪, 善爲歌詞. 教坊樂工每得新腔, 必求永爲辭. 始行於世. 於是聲傳一時.

柳永은 字가 耆卿인데 舉子로 지낼 때 기루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노래 가사를 잘 지었다. 교방의 악공들은 매번 새로운 음악을 얻을 때마다 반드시 柳永에게 청하여 가사를 지은 다음에야 세상에 유행시켜 크게 명성을 떨쳤다.²³⁾

위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악공들이 매번 새로운 음악을 얻을 때마다 반드시 柳永을 찾아갔다고 한다. 이는 기존의 음악이 아닌 새로운 음악으로 사를 지었으며 기존의 음악에 지은 詞가 소령이었던 것과 달리 北宋 중기로 넘어오며 만사가 성행하게 된 이유가 음악의 변화에 있다는 것도 추측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柳永의 『樂章集』의 작품 배열이 宮調별로 구분되어있는데 『樂章集』의 구성이 작품의 내용보다는 음악이 기준이 됨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北宋 중기 문인들의 詞에 대한 인식은

21) 주조모 著, 이동향 역주, 『송사삼백수』, 문학과지성사, 2011년, 63쪽.

22) 김학주 著, 『중국문학의 이해』, 신아사, 1989년, 181쪽.

23) 박홍준, 「북송(北宋) 사학(詞學)의 전개와 사체(詞體) 관념(觀念)의 형성」, 『中國學報』 85권, 2018, 5쪽.

葉夢得 『避暑錄話·卷三』, 海古籍出版社 本社編, 『宋元筆記小説大觀(3)』(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p.2628.

소령, 만사 모두 음악적 특징에 기초한 노래가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²⁴⁾

물론 노래가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다만 내용, 서술 형식면에서 北宋 초기 소령과는 차이가 있다. 만사는 편폭이 넓어지며 사건을 펼쳐서 서술하는 표현방식인 鋪敘의 수법이 사용된다. 柳永의 <定風波>는 鋪敘의 대표적인 예이다.

自春來、慘綠愁紅，芳心是事可可。日上花梢，鶯穿柳帶，猶壓香衾臥。暖酥消，膩雲禪。終日厭厭倦梳裹。無那。恨薄情一去，音書無個。

早知恁憑。悔當初、不把雕鞍鎖。向雞窗、只與蠻箋象管，拘束教吟課。鎖相隨，莫拋躲。針線閑拈伴伊坐。和我。免使年少，光陰虛過。

봄이 왔어도, 봄 빛깔 근심스럽고, 내 마음 어디에도 마음이 가지 않는구나. 해는 꽃 끝에 걸리고, 앵무새 벼들가지 사이를 나는데, 나는 여지껏 이불 덮고 누워 있네. 매끄러운 피부 사라지고 머리도 풀어진 채, 종일토록 늘어져 치장하기도 귀찮다. 어찌하나 박정한 사람 한 번 떠난 뒤로, 소식 한 자 없으니.

일찍이 이럴 줄 알았다더라면, 애초에 말고삐를 왜 묶어두지 않았던가. 그런 후에 글방에 난 창을 향하여, 촉지방의 채색 종이와 상아 붓을 가져다주고, 글공부나 하라고 붙잡아 두는 건데. 날 버리지 못하도록 언제나 함께 하며

한가히 바느질거리 잡고 그이 곁에 짝할 것을. 나와 함께 지내면서, 젊은 시절 허송하지 못하게 할 것을.²⁵⁾

위의 작품에서 입을 떠나보낸 뒤 그리워하며 붙잡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여성의 심정을 표현한 작품이다. 함축적인 비유 없이 사건과 감정을 서술하고 있으며 작품의 형식도 소령과 달리 자유로운 만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시기 北宋은 민간수공업의 발전과 大商人들의 출현으로 민간계층에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²⁶⁾ 따라서 도시경제가 발전하며 문학형식에도 영향을 준다.

소령이 짧고 함축적이며 완약한 서정을 노래하는 귀족들의 오락문화였다면 만사는 길게 펼쳐서 표현하며 때로는 필요에 의해 口語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도시 남녀들과 민

24) 박홍준, 「북송(北宋) 사학(詞學)의 전개와 사체(詞體) 관념(觀念)의 형성」, 『中國學報』 85권, 2018, 6쪽.

25) 박홍준, 「북송사(北宋詞)의 민간문학(民間文學) 특징(特徵)과 그 의미(意味)」, 『中國學報』 98권, 2018, 10쪽.

26) 강길중, 「北宋時期 社會經濟發展과 商業」, 『역사문화연구』 27호, 2007, 129~141쪽.

간계층의 화려한 생활과 자유분방함을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이는 詞를 향유하는 계층이 사대부에서 시민계층으로 확대됨을 의미한다. 민간 시민 계층은 함축적인 의미를 담은 작품의 여운을 즐기기보다는 분명하게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을 것이다. 柳永의 <鬪百花 三>을 살펴본다.

滿搦宮腰纖細。年紀方當笄歲。剛被風流沾惹，與合垂楊雙髻。初學嚴妝，如描似削身材，怯雨羞云情意。舉措多嬌媚。

爭奈心性，未會先憐佳婿。長是夜深，不肯便入鴛被，解羅裳，盈盈背立銀缸，卻道你先睡。

한 손에 잡히는 부드러운 가는 허리. 나이는 이제 겨우 비녀 올린 십 오 세, 풍류가 이제 막 배어들어, 양쪽 귀밑머리 버드나무 드리운 듯 하고, 처음 배운 화장에, 그런 듯 깎은 듯 고운 몸매하며, 사랑은 부끄러워 수줍어하는 모양이, 오히려 몹시도 귀엽구나.

어찌하나 그 마음은, 아직 남자 사랑하는 것을 몰라, 밤이 깊도록, 원앙금침에 들지 않고. 비단치마 벗겨주자, 아리따게 은 등잔 안고 돌아서서, “당신 먼저 그냥 주무세요.” 하는구나.²⁷⁾

위 작품에서는 만사의 특징이 모두 드러나 있다. 상편에서 부끄러워하는 여성의 모습을 다소 노골적으로 표현하며 ‘你先睡(당신 먼저 그냥 주무세요)’라는 구어적 표현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자극적인 소재와 표현은 청중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한데 이와 같은 만사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현대의 유행가처럼 작품의 제재가 비슷하게 운용되었을 것이다.

만사의 이러한 특징은 이전의 형식과 풍격을 확장시키고 문학을 향유하는 계층을 확대시켰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노골적인 표현과 속어들의 사용으로 인해 문인들에게는 저속한 문학으로 평가절하 되었다.

이후 소령과 만사가 공존하던 詞壇은 만사가 주를 이루게 되며 사대부들도 만사의 형식으로 詞를 창작했다. 사대부들이 만사를 쓰기 시작하자 민간의 언어와 표현방법의 수용에 있어 문인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北宋의 대표적인 문인 蘇軾은 만사의 형식은 계층

27) 박홍준, 「북송사(北宋詞)의 민간문학(民間文學) 특징(特徵)과 그 의미(意味)». 『中國學報』 98권, 2019, 8쪽.

하였으나 기존 만사의 서정적인 표현방식을 개선하려고 하였다. 이전 사인들의 완약한 정서와 달리 豪放한 기풍의 제재로 사를 지었다. 이에 따라 蘇軾을 따르는 이들을 豪放派라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黃庭堅, 晁補之, 王安石 등이²⁸⁾ 있다. 蘇軾은 이전 花間派 사인들의 완약하고 여성적인 서정미만을 표현했던 詞와 달리 詞가 다룰 수 있는 주제와 대상을 확장시켰다. 북송의 시인 陳師道(1053~1101)는 『後山詩話』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退之以文爲詩, 子瞻以詩爲詞, 如教坊雷大使之舞, 雖極天下之工, 要非本色.

韓愈는 문으로 시를 지었고, 蘇軾은 시로 사를 지었다. 교방 천하제일의 너대사의 춤처럼 기교가 넘쳐흘러도 본질에서 벗어났다.²⁹⁾

蘇軾 이후 詞는 그 기본적인 특징인 음악성은 홀시되고 보편적인 정서보다는 문인 개인의 사상을 담음으로써, ‘以詩爲詞’의 경향이 짙어지게 된다. 蘇軾의 <念奴嬌-赤壁懷古>를 살펴보자.

大江東去, 浪淘盡, 千古風流人物.
故壘西邊, 人道是, 三國周郎赤壁.
亂石崩雲, 驚濤裂岸, 捲起千堆雪.
江山如畫, 一時多少豪傑.

遙想公瑾當年, 小喬初嫁了, 雄姿英發.
羽扇綸巾, 談笑閒, 強虜灰飛煙滅.
故國神游, 多情應笑我, 早生華髮.
人間如夢, 一尊還酹江月.

큰 강물 동편으로 흐르는데,
물결과 함께 천고의 뛰어난 인물들도 가 버렸는가
옛 보루(堡壘)의 서편이
사람들이 말하길, 삼국시대 周瑜가 曹操의 대군을 쳐부순 赤壁이라네

28) 김학주 著, 『중국문학사』, 신아사, 1989년, 325쪽.

29) 程千飜, 「韓愈의 以文爲詩에 대한 논평」, 『중국어문논역총감』 32호. 2013. 344쪽에서 재인용.

어지러이 바위는 구름위로 솟아있고,
놀란 파도는 강 언덕을 찢을 기세로,
천 더미의 눈 같을 물보라를 말아 올리네,
강산은 그림과 같은데 옛날 한때에는 얼마나 많은 호걸들이 활약했던가.

멀리 周瑜가 활약했던 옛날 생각해보니,
그에겐 미인 小嬌가 갓 시집왔고, 웅자(雄姿)는 영기(英氣)를 발했었지.
새 깃 부채 들고 운건 쓰고, 웃고 얘기하는 사이에,
강적을 재 되어 날려 버리고 연기되어 사라지게 하였지.
옛 고장 생각하며 노니는데, 다정한 아들은 응당히 벌써 내게 흰 머리가 났다고 비
웃겠지.
인간 세상은 꿈같은 것
한잔 술을 강물에 비친 달 위해 따르네.³⁰⁾

蘇軾은 이 작품에서 웅장한 장강의 모습과 그 이전에 거쳐 간 영웅들을 회고하며 장강의 무한성과 그 곳을 거쳐 간 인간의 유한성을 대비하며 덧없는 세월의 흐름과 부질없는 삶을 표현한다. 이전 花間派 詞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지극히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감정 표현이다. 蘇軾의 이러한 ‘以詩爲詞’ 태도를 고수하던 사인들의 의도는 사와 시가 동일한 근원인 『詩經』에서 출발한 시가로 인식하는 ‘詩詞洞源’의 관점으로 詩와 같이 詞 역시 현실사회의 문제와 사회인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³¹⁾ 그러나 ‘노래하는 詞’에 익숙한 당시 詞壇은 이러한 창작태도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리하여 北宋 중기의 詞壇은 기존 詞의 本色을 유지하는 것과 蘇軾의 ‘以詩爲詞’적 경향의 대립으로 귀결된다.

北宋 후기가 되자 앞서 말했던 대립이 심화되며 노래를 기반으로 하는 詞의 本色論을 지지하는 사인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을 ‘격률사파’라고 한다. 이들은 豪放派 이전의 花間派의 완약한 풍격을 사용하며 성률과 격조에도 주의하였다. 柳永과 같이 섬세한 염정을 표현하는 만사를 썼지만 속되지 않고 雅正했으며 격률을 중시했다. 이로써 詞는 다시 음악성을 띄게 된다. 대표적인 문인으로는 秦觀, 賀鑄, 周邦彥, 李清照가 있다.

30) 김학주 著, 『중국문학의 이해』, 신아사, 1989년, 184쪽.

31) 박홍준, 「북송(北宋) 사학(詞學)의 전개와 사체(詞體) 관념(觀念)의 형성」, 『中國學報』 85권, 2018, 7쪽.

秦觀은 蘇軾의 제자, 蘇門 四學士중 한사람이지만 그의 사풍은 蘇軾과 달랐다. 그의 작품 중 <滿庭芳>를 살펴보자.

山抹微雲, 天連衰草, 畫角聲斷譙門.
暫停征棹, 聊共引離尊.
多少蓬萊舊事, 空回首煙靄紛紛.
斜陽外, 寒鴉萬點, 流水繞孤村.

銷魂! 當此際, 香囊暗解, 羅帶輕分.
謾贏得青樓, 薄幸名存.
此去何時見也? 襟袖上空惹啼痕.
傷情處. 高城望斷. 燈火已黃昏.³²⁾

산에는 얽은 구름 비끼었고, 시든 풀은 하늘 저편까지 펼쳐있는데, 호각 소리 망루에서 애절히 들리네.

잠시 떠나갈 배 멈추고, 함께 이별의 술 잔 드는데,
갓가지 會稽에서의 옛 일 떠올라, 공연히 머리 돌려 바라보니 안개만 자욱하네.
해 기우는 저편에, 싸늘한 까마귀 몇 마리 점점이 있고, 흐르는 물은 외로운 마을 감돌고 있네,

애가 타는구나!, 이렇게 되고 보니, 몸 여위어 향주머니 어느새 느슨해지고, 비단 띠도 헐거워졌네.

부질없이 기생집만 드나들다, ‘매정한 자’라는 이름만 얻게 되었는가.
이제 가면 언제 다시 만나려나, 옷자락엔 공연히 눈물 자국만 얼룩지네.
가슴 아파 높은 성 올라 바라보나, 어느덧 황혼 속에 등불만 깜빡 이는구나.

이 작품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한 여자와 이별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처량한 경치를 묘사하며 이별의 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전 柳永과 장선의 만사가 도시 남녀의 염정과 직설적 표현을 이용했다면 이 시기의 만사는 이전 花間派의 풍격을 계승

32) 百度漢語 滿庭芳·山抹微雲 2020.06 (<https://hanyu.baidu.com/shici/detail?pid=6451ae2ea900478c99606a094e7b2d8e&from=kg0>)

하고 있다. 이렇게 ‘以詩爲詞’를 주장했던 蘇軾과 詞의 本色論을 주장하는 詞인들이 대립하는 시기에 李清照의 <詞論>이 등장한다.

逮至本朝，禮樂文武大備，又涵養百餘年，始有柳屯田永者，變舊聲作新聲，出樂章集。大得聲稱於世，雖協音律，而詞語塵下。又有張子野宋子京兄弟，沈唐元絳晁次應輩繼出，雖時時有妙語，而破碎何足名家。至晏元獻歐陽永叔蘇子瞻學際天人，作爲小歌詞，直如酌蠡水…於大海，然皆句讀不葺之詩爾，又往往不協音律者。何耶。蓋詩文分平側，而歌詞分五音，又分五聲，又分六律，又分清濁輕重……王介甫曾子固，文章似西漢，若作一小歌詞，則人必絕倒，不可讀也。乃知別是一家，知之者少。後晏叔原賀方回秦少游黃魯直出，始能知之。又晏苦無鋪敘。賀苦少典重。秦卽專主情致，而少故實，譬如貧家美女，非不妍麗，而終乏富貴態。黃卽尚故實，而多疵病，譬如良玉有瑕，價自減半矣。

본조에 이르러 예악과 문무가 크게 갖추어지고 또한 백 여 년을 함양하여 비로소 柳永이라는 자가 옛 소리를 바꾸어 새 소리를 만들어 『樂章集』을 내놓았다. 세상에서 크게 칭송을 얻고 비록 음률에는 맞았으나, 그 말이 저속하였다. 또한 張先과 宋祁 형제가 있었고, 沈唐, 元絳, 晁端禮 무리가 계속 출현하여 때때로 묘한 표현이 있었으나 자잘하니 어찌 명가라 하겠는가. 晏殊, 歐陽修, 蘇軾에 이르면 학문이 천도와 인사의 경지를 아우른 분들이 작은 노래가사를 지으니 마치 큰 바다에서 한 표주박 물을 뜨는 것 같지만 모두 구두가 나란하지 않은 시일 뿐 때로 음률에 맞지 않음은 무엇 때문인가? 대개 시문은 平側을 구분하지만, 가사는 五音을 나누고 또한 五聲을 나누며 다시 六律을 구분하고 清濁과 輕重을 구분하기 때문이다……王安石, 曾鞏은 문장은 西漢과 비슷하나 노래가사를 짓게 되면 사람들이 반드시 놀라 쓰러지며 읽을 수 없을 것이다. 이로써 詞는 詩와는 다른 一家임을 알 수 있으니, 그것을 아는 자가 적다. 뒤에 晏幾道, 賀鑄, 秦觀, 黃庭堅이 출현하니 비로소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안기도는 鋪敘가 없음이 괴롭고, 하주는 전아함과 장중함이 부족하니 안타깝다. 秦觀은 오로지 정취만을 주로 하여 전고가 부족하니, 비유하자면 가난한 집 미녀가 예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끝내 귀티가 나지 않는 것과 같다. 黃庭堅은 전고만을 숭상하여 하자가 많으니, 좋은 옥에 티가 많아서 그 가치가 반감되는 것과 같다.³³⁾

33) 박홍준, 「북송(北宋) 사학(詞學)의 전개와 사체(詞體) 관념(觀念)의 형성」, 『中國學報』 85권, 2018, 9쪽에
서 재인용. 원문은 李清照, 『詞論』, 『中國歷代文論選』, 上海古籍出版社, 2001, 189~190쪽을 참조.

李清照는 宋代 詞의 발전을 서술하며 문인의 실명과 특성을 언급한다. 그녀가 거론한 문인들은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음률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이다. 柳永과 장선 등은 음률을 알아 맞게 지었으나 표현이 저속하였고, 안수, 구양수, 蘇軾, 왕안석 등은 사의 본색인 음률을 모르는 부류이기 때문에 제대로 사를 지을 수 없다고 언급한다. 이는 ‘以詩爲詞’의 사 짓기 인식을 비판하는 것이며, 이 인식을 부정하기 위해 ‘別詩一家’ 설을 주장했다. ‘別詩一家’설은 北宋 초기와 중기에 계속 제기되었던 사의 本色, 즉, 사의 음악성과 특수한 기능을 詩와 연결 짓지 않고 사의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로써 민간문학이었던 詞는 중국문학사에서 宋代를 대표하는 독립적인 문학양식으로 등장할 수 있었다.

앞서 내용을 정리하자면 北宋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사대부들의 사에 대한 인식은 끊임없이 변화하였다. 의미 있는 점은 민간문학 양식, 여흥을 즐기는 문학, 시를 짓고 난 후 남는 시간에 하는 글쓰기라는 인식에서 文雅性을 중시하는 독립적인 문학양식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2. 詞 인식의 이중성

靖康年間(1126~1127)에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의 군대가 송나라의 수도 汴京을 함락시키며 송나라는 중국 역사상 정치적 중심지였던 화북을 잃게 된다. 다음 해 徽宗, 欽宗이 북쪽으로 잡혀가는데 이를 靖康之變이라 한다. 徽宗의 아홉째 아들 趙構가 南京으로 피난 후 즉위하여 高宗이 되는데 이로부터 南宋이 시작된다.³⁴⁾

조국을 잃은 국가적 재난에 마주한 사대부들은 이전 宋詞의 전통적 제재인 완약한 서정을 나타내는 규방, 가정, 남녀 간의 염정 등의 내용에서 중원수복과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憂國 등의 내용으로 작품을 창작하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여성미가 특징이었던 北宋의 사가 南宋으로 넘어가며 남성적인 강건하고 호방한 사로 대체되며 蘇軾의 호방한 풍격의 사가 다시 부흥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문인으로는 辛棄疾(1140~1207), 陸游

34) 김학주 著, 『중국문학사』, 신아사, 1989년, 330~331쪽.

(1125~1209), 陳亮(1143~1194), 劉過(1154~1206)등이 있다. 이들은 豪放詞派라고 불리며 시대의 비극을 詞작품에 반영하였다. 悲憤慷慨의 정서를 작품에 쏟아내며 北宋 婉約詞에서 중시했던 句式과 음률을 깨고 詞를 지었다.

주지하듯이 宋代에는 崇文 정책으로 과거제도를 통해 사대부 문인들이 관직으로 활발하게 진출하였다. 그러나 北宋대 과거제도는 論과 策을 중시하였는데 그 결과 議論을 선호하는 풍조가 宋代 문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산문은 전통적으로 정치성과 의론성이 강한 문학으로 宋代에 산문이 성행하자 詩 또한 변화하여 詩歌의 산문화와 의론화는 宋代 문학의 특징이 되었다. 또한 성리학의 발달로 意와 理를 중시하며 理學家들의 영향을 받아 南宋에 이르러 詞문학에도 영향을 주며 南宋 豪放派의 특징이 되는데 이를 ‘以文爲詞’라고 한다.

이를 통해 南宋의 詞는 ‘以詩爲詞’와 ‘以文爲詞’ 두 가지 글쓰기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以詩爲詞’는 詞의 내용면에서 사상, 감정, 내용 등을 이전과 다르게 자유롭게 표현하며 詞의 틀에서 벗어나 詞의 제재를 넓혔고, ‘以文爲詞’는 내용과 제재의 확장으로 표현형식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온다. 典故를 사용하며 초기 함축적인 의미전달의 詞와는 달리 명확한 목적과 의의로 詞를 창작하게 된 것이다. ‘以詩爲詞’와 ‘以文爲詞’ 이 두 가지 방식의 공통점은 내용적인 면을 중요시하며 격률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용과 제재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詞의 本色인 운문적 성격과 음악성의 악화를 초래하기도 하였다.³⁵⁾

남송 초기 호방한 풍격을 지닌 辛棄疾의 <鵲橋天·有客慨然談功名因追念少年時事戲作> 상편을 살펴본다.

壯歲旌旗擁萬夫，錦襜突騎渡江初。
燕兵夜妮銀胡轡，漢箭朝飛金僕姑。

청년 때 깃발 들고 용사 만 명 이끌고
비단 적삼에 돌격 기병으로 장강을 처음 건넜지.
북방의 군사는 밤에 은호록(銀胡轡)을 정돈하고

35) 나련철 著·김지영 譯, 「한유의 詩文合一과 문장 文章流弊에 대한 논의」, 『중국어문논역총간』 2017, 368~369쪽.

한나라 화살은 아침에 금복고(金僕姑)를 날렸지.³⁶⁾

위 작품은 辛棄疾이 抗金 무장봉기에 참여하여 산둥으로 돌아가던 도중 張安國이 배반하여 봉기군 대장 耿京을 죽이고 금나라에 투항한 소식을 듣고 50여 기병을 데리고 張安國을 생포하여 建康으로 내려가는 길에 쓴 작품이다. 여기서 辛棄疾은 북방의 군사(燕兵)와 한나라 화살(漢箭)을 대비하여 남송과 금, 한족과 오랑캐를 대비하였다. 이를 통해 金에 대한 적대감과 함께 호방한 기상을 엿볼 수 있다. 또 다른 豪放詞人 陳亮의 작품 <水調歌頭·送章德茂大卿使虜>를 보자.

不見南師久,謾說北群空.
當場只手,畢竟還我萬夫雄.
自笑堂堂漢使,得似洋洋河水,依舊只流東.
且復穹廬拜,曾向槁街逢.

堯之都,舜之壤,禹之封.
於中應有,一個半個恥臣戎.
萬裏腥膻如許,千古英靈安在,磅礴幾時通.
胡運何須問,赫日自當中.

남쪽의 군대를 오랫동안 못봤다 하여
금군은 인재가 텅 비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사신을 담당한 그대의 한 손은
필경 우리 만 명의 영웅이라네.
당당한 한나라 사신의 굴욕적인 화의를 비웃듯
넘실대는 듯한 황하 물은
여전히 동쪽으로만 흘러간다.
잠시 둥근 천막집에서 배알하지만
때맞추어 그들을 외국사신이 거주하는 곳으로 압송해야 하리

36) 서성, 「신기질(辛棄疾)의 남조(南朝)에 대한 역사적 기시감(既視感)과 문학적 형상화」, 『중국문화연구』 42호, 2018, 77~79쪽.

요임금의 성도, 순임금의 땅, 우임금에게 봉해진 곳이니
 그 중에는 마땅히 있을 것이다.
 한 개나 반 개나 오랑캐의 신하됨을 부끄러워하는 영웅
 만 리 산하에 비린내 노린내가 가득한데
 천고의 영웅의 뉘 어디에 있나?
 어느 때 위대한 정신과 통할까?
 오랑캐의 운명을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은
 宋왕조의 국운이 하늘에 뜬 붉은 정오의 해와 같기 때문이다.³⁷⁾

위 작품은 孝宗 淳熙 2년(1185)에 章森이 명을 받들어 금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된 것
 에 모욕감을 느낀 진량이 친우인 章森이 출발하기 전에 지어준 것이다. 상편에서 ‘남쪽의
 북벌군을 못 본 것이 오래되었다 하여’라고 한 것을 통해 금과 굴욕적인 화친을 맺은 현
 재의 조국과 조정 내에 主和派에 대한 원망과 불만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하편 마지막
 구절 ‘胡運何須問，赫日自當中’에서 금의 운명을 물을 필요가 없으며 宋왕조의 국운이 하
 늘에 뜬 붉은 정오의 해(赫日)라고 표현함은 아직 가지고 있는 중원수복의 희망과 宋代
 의 재건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렇듯 진량의 詞에는 經世濟民의 사상이
 담겨져 있다.

陸游의 <秋波媚·七月十六日晚登高興亭望長安南山>을 살펴보자.

秋到邊城角聲哀，烽火照高台。
 悲歌擊築，憑高酌酒，此興悠哉。
 多情誰似南山月，特地暮雲開。
 灞橋煙柳，曲江池館，應待人來。

가을이 되어 변방성에 호각소리 구슬프고, 봉화는 높은 누대를 비추네.
 슬픈 노래로 築³⁸⁾을 타다 높은 곳에 기대 술을 땅에 부으니, 이에 흥은 아득해져간
 다.

다정하기로 누가 남산의 달만 하리, 특별히 황혼녘의 구름 걷히네.

37) 風骨古詩文圖地, 2020.06, http://www.bojiukj.com/shici_detail/58914.html 번역 참고.

38) 축. 중국 고대 한족의 현악기이며 비파와 비슷하고 13개의 현으로 이루어져있다.

안개 쌓인 灞橋³⁹⁾의 버드나무, 曲江⁴⁰⁾ 옆 객사에서는 응당 사람이 오길 기다리네.

위의 작품은 陸游가 王炎의 부름으로 蜀에서 막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지은 것이다. 상편에서 邊城, 角聲을 통해 출정명령을 기다리는 막사의 긴장감을 표현하고 하편에서는 높은 곳에 올라 때마침 구름이 걷히고 金에게 빼앗긴 長安을 바라보며 長安수복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을 응당 사람이 오길 기다리는 長安 灞橋의 버드나무와 曲江의 객사를 장안에 남은 유민에 비유하며 그들을 걱정하는 감정을 표현한다. 그의 中원수복과 유민에 대한 걱정을 표현하는 작품은 蜀에서 막부 생활을 하던 시기에 많이 창작된다. 이는 陸游의 <好事近·登梅仙山絕頂望梅>에서도 확인된다.

揮袖上西峰,孤絕去天無尺.
拄杖下臨鯨海,數煙帆曆曆.
貪看雲氣舞青鸞,歸路已將夕.
多謝半山松吹,解殷勤留客.

옷소매 휘날리며 서쪽 봉우리에 오르니
홀로 우뚝 솟아 하늘과 맞닿아 있는 듯하네
지팡이 짚고 아래로 넓은 바다를 내려다보며
안개 속 또렷한 돛배를 헤아려보네.

구름 속에 춤추는 푸른 난새 실컷 보다
돌아오는 길 이미 저물녘일세.
산 중턱 소나무의 바람 소리에 감사하니
두터운 정으로 나그네를 붙잡네.⁴¹⁾

이 詞는 陸游가 梅仙山⁴²⁾에 올라 향주를 내려다보고 쓴 것으로 상편에서 하편까지 시

39) 灞橋, 長安 동쪽 灞水위 다리, 灞橋折柳 長安 灞橋에서 사랑을 전송하며 이별을 슬퍼하여 버들가지를 꺾어 재회를 약속한다는 古事가 있다.

查字典, 2020.06, https://www.chazidian.com/r_ci_159d48a4d0279f9edab64d153b58fd2a/ .

40) 曲江, 長安 동남 쪽에 위치한 연못

41) 주기평 역해, 『陸游詞』, 학고방, 2015, 221쪽.

42) 전설에 梅福이 여기에서 은거하였다고 한다.

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되고 있다. 이 작품은 앞서 예를 든 작품과 다르게 陸游가 山陰 유거 시기에 쓴 작품이다. 상편에서는 梅仙山의 장대한 모습과 정상에서 내려다보이는 광활한 바다의 모습이 묘사되고, 그 장대한 자연경관을 마주한 채 지팡이 짚고 서 있는 문인의 나이든 모습을 대비하며 공업수립의 꿈을 이루지 못한 문인의 아쉬움을 나타낸다. 하편에서는 ‘돌아오는 길 이미 저물 녀’이라는 표현을 통해 실현하지 못한 문인의 이상과 노쇠한 문인 본인의 현실을 드러낸다. ‘孤’, ‘絶’, ‘夕’, ‘留’, ‘客’이란 단어를 통해 쓸쓸함과 외로운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호방과의 풍격은 후에 劉克莊이 계승하는데 그의 작품 중 劉克莊이 떠나는 친구 陳子華에게 쓴 送別詞 중 하나인 <賀新郎·送陳子華赴真州>의 상편을 살펴보자.

北望神州路
 試平章，這場公事
 怎生分付。
 記得太行山百萬
 曾入宗爺駕馭
 今把作握蛇騎虎
 君去京東豪傑喜，想投戈下拜眞吾父。
 談笑裏，定齊魯。

멀리 북쪽으로 중원 길 바라보며
 이번 중원을 회복하는 일을 궁리해보니, 어떻게 처리해야 잘 해결하겠는가?
 기억하노니, 태항산에 숨어있던 봉기군 백만 명이 종택 나으리에게 귀의했던 지난
 일이
 지금은 봉기군을 뺨 잡은 듯 범을 탄 듯 꺼려만 하니
 그대 가면 東京路의 호걸들이 기뻐하여, 창을 놓고 절을 하며 아버지라 부를 것이
 다.
 담소하는 사이에 제나라와 노나라 땅은 평정되리라.

이는 劉克莊이 친구 陳子華에게 쓴 送別詞로 陳子華는 당시 眞州兼南東路 提点刑獄로 군사적으로 금나라와 대치하는 매우 중요한 전선에 있었다. 당시 농민의 기군이 북방에

서 일어나 금나라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금군들이 퇴각한 후 몽고군과 농민의기군의 충돌이 발생하여 南宋 조정은 陳子華를 眞州로 파견한다. 진량은 이 송별사 상편에서 농민의 기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며 陳子華가 宗澤이나 岳飛장군의 전략과 노선을 계승하면 東京의 호걸들이 모두 송의 군대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劉克莊은 중원회복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詞를 창작함으로써 詞의 비평성이 강화되고 전통적인 격률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특징을 보인다.⁴³⁾

이후 南宋은 1141년 금나라와 화의를 맺어 소강상태가 된다. 남부지방 도시들은 다시 번영을 이루어 南宋의 수도 杭州는 이전 北宋의 汴京보다 변화하게 된다.⁴⁴⁾

이렇게 전란기를 지나 다시 도시경제가 발달하자 사대부들은 망국의 슬픔을 잊고 다시 향락을 추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노래가사로서의 사의 기능이 되살아나 음률과 형식을 중시하게 되어 北宋의 格律詞派를 잇는 풍조가 생겼다. 그러나 그들은 음률과 형식에 구속되어 내용면에서 문인의 개성이나 창의는 발휘하지 못하는 폐단을 보여준다. 이로써 북송에 성행한 사가 남송을 거쳐 남송 후기 지나친 형식화로 인해 결국 쇠퇴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앞서 말했듯이 北宋시대 詞는 이전시기에 비해 文雅性이 중시되어 하나의 문학양식으로 인정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詞의 本色은 남녀 간의 염정이나 환락과 유희를 노래한다는 인식으로 인해 詩보다 평가절하 되는 경향이 있었다. 南宋시기 사대부들은 문학의 文雅性을 중시하면서도 詞의 창작을 멈추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宋代 多作詩人인 陸游는 65세에 『放翁詞』라는 자신의 詞集을 처음 편찬하였는데, 이 책의 서문인 <長短句序>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予少時汨於世俗，頗有所爲。晚而悔之，然漁歌菱唱，猶不能止。今絕筆已數年，念舊作終不可捨，因書其首以識吾過⁴⁵⁾

내 젊었을 때 세속에 빠져 자못 (장단구를) 쓴 바가 있었다. 만년이 되어서 이를 후회했으나 고기잡이하며 부르는 노래와 마름 따며 부르는 노래는 오히려 그칠 수가 없었다. 지금은 짓지 않은지 이미 수년이 되었으나 옛날에 지은 작품을 생각하고는 끝내

43) 이태형, 「중국 남송대 호방사인의 새로운 글쓰기 언어문화전략」, 『중국과중국학』 31호, 199~200쪽.

44) 김학주, 『중국문학사』, 신아사, 1989년, 335쪽.

45) 陸游, 『渭南文集』권14, <長短句序>.

國學大師, 2020.06, <http://skqs.guoxuedashi.com/3035z/1845969.html> .

버리지를 못하고 이에 그 머리에 글을 써 나의 잘못을 기록한다.⁴⁶⁾

이 문장에서 陸游가 밝혔듯 그는 사를 쓴 것을 ‘세속에 빠져’라고 표현하며 이를 후회하며 경계하기 위하여 잘못을 기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끝내 버리지를 못하고’라는 대목을 통해 陸游가 詞 창작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으나, 내면의 감정이나 흥취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詞 창작의 또 다른 인식을 지니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사실 이후로도 陸游는 詞作 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이미 ‘吟詠專嘲風月(시문을 읊으며 오로지 풍월을 조롱하다)’이란 죄목으로 탄핵된 적이 있기 때문에 세간의 부정적인 詞 인식을 의식하여 서문을 통해 詞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후에 발표한 <跋後山居士長短句>와 <跋東坡七夕詞後>을 살펴보면 詞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알 수 있다.

唐末，詩益卑，而樂府詞高古工妙，庶幾漢魏。陳無已詩妙天下，以其餘作辭，宜其工矣。顧乃不然，殆未易曉也

당 말에 시는 더욱 비천해졌으나 악부의 말은 고고하고 빼어나 거의 한위와 가까웠다. 陳師道の 시는 천하에 빼어나 그 여력으로 사를 썼으니 빼어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살펴보면 그렇지 않으니,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陸游는 당 말에 시가 비천해지며 詞가 고고한 풍격에 오히려 더 가까웠음을 명시하며 진사도(後山居士)의 사가 시와 같이高雅하지 못함을 비판했다.⁴⁷⁾ 그러나 같은 책에 담은 蘇軾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한다.

昔人作七夕詩，率不免有珠櫳綺疏惜別之意。惟東坡此篇，居然是星漢上語，歌之，曲終，覺天風海雨逼人，學詩者當以是求之⁴⁸⁾

옛날 사람들이 지은 칠석시는 대체로 구슬을 장식한 창이나 비단으로 바른 창 아래서의 석별의 정임을 면하지 못하였다. 다만 蘇軾의 이 작품만은 확실히 은하수 위의 말이어서 노래를 다 부르고 나면 하늘의 바람과 바다의 비가 사람에게 휘몰아쳐 음을

46) 주기평, 「陸游詩詞比較研究」, 『중국문학』 84호, 2015, 26쪽에서 재인용.

47) 주기평, 「陸游詩詞比較研究」, 『중국문학』 84호, 2015, 27쪽

48) 陸游, 『渭南文集』 권28, <跋東坡七夕詞後>

느낄 수 있으니, 시를 배우는 사람은 마땅히 이것을 구해야 한다.⁴⁹⁾

이 글에서 陸游는 호방한 필치를 담고 있는 蘇軾의 七夕詞를 높이 평가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詞에 대한 문학성의 전면 부정이 아닌 내용상의 文雅性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그가 81세 때인 말년에 쓴 <跋花間集> 더욱 극명하게 보인다.

花間集皆唐五代時人作. 方斯時, 天下岌岌, 生民救死不暇, 士大夫乃流宕至此. 可歎也哉! 或者, 出於無聊故耶?⁵⁰⁾

『花間集』은 모두가 당말 오대의 사람들이 지은 것이다. 바야흐로 이때는 천하가 위태로워 백성을 살리고 죽음에서 구해내기에다 겨를이 없었거늘 사대부들이 방탕함에 흐른 것이 이와 같았다. 진정 한탄스럽나니, 혹 무료함에서 나온 까닭이지 않겠는가?⁵¹⁾

陸游의 詞 창작에 대한 인식은 당시 사대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기존 사대부들이 詞의 유희성과 오락성에 한하여 이중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면, 陸游는 유가적 대의명분과 사대부로서의 소명의식을 기본으로 유희성, 오락성뿐만 아니라 문학의 역할과 사대부의 시대적 소임을 詞에 담아내는 것을 강조했다.

그로 인해 陸游는 주로 통속적인 주제나 道家思想 지향을 다루면서도 憂國의 悲憤이나 조정에 대한 비판 같은 시대의식을 담은 주제를 함께 노래하며 詩의 작시방법을 詞에 차용한다. ‘詞의 詩化’를 추구하며 典故를 다용하며 詞의 文雅性을 추구했다.

49) 주기평, 「陸游詩詞比較研究」, 『중국문학』 84호, 2015, 27쪽

50) 陸游, 『渭南文集』 권30, <跋花間集>.

51) 주기평, 「陸游詩詞比較研究」, 『중국문학』 84호, 2015, 27쪽.

Ⅲ. 陸游詞의 제재분류

본 장에서는 陸游의 작품에서 제재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분류하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詞는 俚俗性이 강한 민간문예양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녀 간의 연정이나 유희를 노래하는 통속적인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陸游의 詞는 남녀연정과 같은 통속적인 주제나 도가적 지향을 다루면서도 다양한 제재를 운용해 憂國의 비분이나 공업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 조정에 대한 비판과 같은 시대의식을 담은 주제를 함께 노래하였다.⁵²⁾ 北宋 교체기 시국을 반영한 憂國과 관련된 작품은 문인의 인생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북벌에 대한 염원과 타향살이로 인한 고향에 대한 향수와 관련된 제재가 다수 등장한다. 그 외로 도가적 사상, 산수자연, 자연현상의 제재를 운용하여 도가사상과 한적한 삶을 주제로 담은 작품들을 제재별로 분류하고자 한다.

1. 時局

北宋 교체기를 겪은 陸游는 오랜 타향살이로 인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 및 憂國과 관련된 작품을 다수 남겼다. 초기에는 관직에 오른 후 북벌에 대한 열망과 북벌실패로 공업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鼓角, 邊城, 角聲, 烽火, 野帳, 秋, 殘夢, 山驛, 淒涼, 燈昏 등의 제재로 표현했다. 예를 들면 <水調歌頭·多景樓> 상편에서는 변방과 군대를 상징하는 제재들을 전운이 감도는 풍경을 묘사하고 孫權과 劉備가 曹操에 맞서 싸웠던 옛일을 회상한다. 북벌론을 지지하며 중원수복을 염원하던 그의 바람은 張浚의 북벌실패로 좌절된다.

이후 陸游가 王炎과 함께 南鄭 막부에서 북벌을 준비할 때 지은 <秋波媚·秋到邊城角聲哀>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다.

52) 주기평, 「陸游詩詞比較研究」, 『중국어문학회』 제84권, 2015, 28~29쪽.

秋到邊城角聲哀，烽火照高台。
悲歌擊築，憑高酌酒，此興悠哉。
多情誰似南山月，特地暮雲開。
灞橋煙柳，曲江池館，應待人來。

가을이 되어 변방성에 호각소리 구슬프고, 봉화는 높은 누대를 비추네.
슬픈 노래로 築을 타다 높은 곳에 기대 술을 땅에 부으니, 이에 흥은 아득해져간다.
다정하기로 누가 남산의 달만 하리, 특별히 황혼녘의 구름 건어주네.
안개 쌓인 灞橋의 버드나무, 曲江 옆 객사에서는 웅당 사람이 오길 기다리네.

상편 邊城, 角聲이 출정명령을 기다리는 막사의 긴장감을 표현하고 하편에서는 높은 곳에 올라 때마침 구름이 걷히고 金에게 빼앗긴 長安을 바라보며 長安수복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을 長安 灞橋의 버드나무와 曲江의 객사가 기다린다고 비유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王炎이 臨安으로 소환되며 막부는 해체되어 陸游도 成都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길에서 쓴 <清商怨·葭萌譯作> 상편에서는 山驛(산의 역참), 淒涼(처량), 燈昏(어두운 등불)이라는 詞語를 이용하여 다시 좌절된 중원수복의 안타까움을 표현한다.

江頭日暮痛飲，乍雪晴猶凜，山驛淒涼，燈昏人獨寢。
해질 녘 강가에서 술 들이키니, 잠깐 눈 내리다 개였지만 여전히 춥네,
산의 역참은 처량하고, 어두운 등 아래 홀로 잠드네.

山驛, 淒涼, 燈昏 통해 결국 작품 속 ‘人’은 홀로 잠들어 암담하고 쓸쓸한 심경을 담아 낸다. 이후 성도로 돌아간 陸游는 남정의 막부 생활을 기억하며 북벌에 실패한 일을 아쉬워하며 성도의 생활에 회의를 느낀다. <漢宮春·初自南鄭來成都作>을 살펴본다.

羽箭雕弓，憶呼鷹古壘，截虎平川。
吹笳暮歸野帳，雪壓青氈。
淋漓醉墨，看龍蛇飛落蠻箋。
人誤許，詩情將略，一時才氣超然。

何事又作南來，看重陽藥市，元夕燈山。
花時萬人樂處，欵帽垂鞭。
聞歌感舊，尙時時流涕尊前。
君記取，封侯事在，功名不信由天。

깃털 달린 화살과 무늬 새긴 활 들고
매를 부르던 옛 보침과
호랑이 잡던 평원을 생각하네.
피리 불며 저물녘에 들판의 막사로 돌아오면
눈은 푸른 장막을 뒤덮었고,
취한 먹물 뿌리면
용이 종이 위에 날아 떨어진 듯하였네.
사람들은 나를 잘못 알았나니
시인의 정서와 장군의 지략이 있어
한 시대의 탁월한 재기가 있다 하였네.

무슨 일로 다시금 남쪽으로 와
중양절의 약령시와 대보름날의 산 같은 꽃등을 보고 있는가
꽃 피는 시절, 모든 사람들 즐기는 곳에
모자 비껴쓰고 채찍 드리운 채 지나네.
노랫소리 듣고는 옛날이 생각나
술동이 앞에서 때로 눈물 흘리네
그대 기억하게나, 제후에 봉해질 일은 있으니
공명은 반드시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네.

위 작품 상편에서 낮에는 평원을 누비며 사냥하고 밤에는 눈이 내려 막사를 덮는 열악한 환경에서 밤이면 막사로 돌아와 시를 쓰던 생활을 회상한다. ‘시인의 정서와 장군의 지략’이라는 칭송을 들었지만 하편에서 성도로 돌아온 후 중양절을 즐기는 본인의 모습에 아무 공업도 달성하지 못하고 성도에서의 관직생활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듯 陸游는 과거 공업을 이루지 못한 것과 북벌에 실패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흘러

가는 세월을 안타까워하는 심리를 작품에 드러냈다. 이는 그의 인생 전반에서 나타나는 작품의 경향과 밀접하다. 南宋 초기 救國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타지를 떠돌았던 상황이 그의 작품에서 憂國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나타난 것이다. 예를 들어 <謝池春·壯歲從戎>를 살펴보자.

壯歲從戎，曾是氣吞殘虜。陣雲高，狼烽夜舉。朱顏青鬢，擁雕戈西戍。笑儒冠自來多誤。

功名夢斷，却泛扁舟吳楚。漫悲歌，傷懷弔古。煙波無際，望秦關何處。歎流年，又成虛度。

젊은 시절 전쟁터로 나아가, 무릇 잔인한 오랑캐를 삼킬 듯 했네.

진지 위 구름은 높고, 봉화는 한밤중에 일으켰네.

홍안의 검은머리로 장식한 창을 끼고 서쪽에서 수비하며, 유생이란 원래 잘못이 많다 비웃었지.

공명의 꿈은 끊어지고, 그저 吳楚에 작은 배 띄우네.

슬픈 노래 흘러지니, 상심한 마음을 품고 옛 일을 마음 아파하네.

안개 낀 파도는 끝이 없고, 秦關을 바라보니 어디에 있는가.

흐르는 세월 탄식하니, 또 헛되이 지나가 버리네.

상편에서 陣(진지), 狼烽(봉화), 雕戈(장식한 창) 등으로 南鄭에 있던 시기를 회상함을 알 수 있다. 이어서 하편에는 고향에서 작은 배나 띄우며 세월을 흘러보내는 자신의 모습을 안타까워한다. 또 다른 작품 <訴衷情·當年萬裏覓封侯>를 살펴본다.

當年萬里覓封侯，匹馬戍梁州。關河夢斷何處，塵暗舊貂裘。

胡未滅，鬢先秋，淚空流。此生誰料，心在天山，身老滄洲。

그 해에 만 리길 제후로 봉할 길 찾아, 필마로 양주를 지켰네.

변경에서의 꿈은 끊어져 어디로 갔는가? 옛 담비가죽 옷은 먼지가 자욱해졌네

오랑캐는 섬멸되지 않고, 귀밑머리 먼저 세월이 내리니, 눈물만 공허하게 흐르네.

이 삶 누가 헤아릴까? 마음은 천산에 있건만, 몸은 늙어 물가에 있네.

상편에서 匹馬(필마), 關河(변경지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앞서 초·중기관직시기에

복벌에 대한 열망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던 제재이다. 상편에서는 南鄭에서 종군했던 젊은 날을 회상하지만 후편에서는 鬢(귀밑머리), 秋(가을), 淚(눈물)이라는 제재를 통해 공업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공허하게 늙어버린 자신을 안타까워한다. 마지막 두 구절을 보면 ‘心在天山, 身老滄洲(마음은 천산에 있건만, 몸은 늙어 물가에 있네)’라 말하며 젊은 날의 마음과 늙은 몸을 대비하며 표현을 극대화 한다.

앞서 예시를 들었듯, 陸游는 邊方, 烽火, 野帳 등의 제재를 이용하여 전장의 분위기를 이끌어 작품에서 복벌에 대한 의지와 염원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복벌과 중원수복에 실패하며 공업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으로 바뀌었으며, 지방으로 좌천되어 지방 관리로 여기저기를 떠돌게 되며 중기 관직 시기에는 중앙 관직으로 나가지 못하는 아쉬움과 고향과 멀어져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신세를 여러 자연경물에 빗대어 외로움과 쓸쓸함을 표현했다.

2. 孤獨과 望鄉

陸游는 관직 임명 후 鎮江, 南昌, 夔州에 머물고 南鄭에서 막부 생활을 시작하나 얼마 되지 않아 臨安으로 소환되어 이후 南鄭, 成都, 嘉州, 榮州 등지에서 지방관을 역임하였다. 줄곧 고향에서 멀어져 타향을 떠돌며 지방관으로 임하는데 이로 인해 그의 작품에는 고향과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다양한 제재로 표현한다. 예를 들면, 他鄉客, 孤店, 塞月, 鄉夢, 羈雁, 孤城, 病驢, 孤雲, 殘春風絮, 歸夢 등으로 표현되는데 대부분 사물에 본인의 처지를 비유하여 감정을 나타낸다.

陸游가 鎮江通判을 지내다가 隆興通判에 부임하게 되어 떠날 때 남은 자들을 위한 贈別詞인 <萬江紅·危堞朱欄> 중 일부를 보도록 한다.

縵縵難忘當日語, 淒涼又作它鄉客.

이별을 아쉬워하며 헤어지던 날의 말을 잊기도 어렵건만, 처량하다 또 타향의 나그네 되었네.

위의 작품에서 고향을 떠나 타향을 떠돌며 관직생활을 이어가던 陸游는 또다시 마주한 이별에 자신을 타향의 나그네에 비유하여 떠나는 서글픔과 남아있는 사람들이 가질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다른 작품 <定風波·進賢道上見梅贈王伯壽>를 살펴본다.

欹帽垂鞭送客回，小橋流水一枝梅。衰病逢春都不記。誰謂，幽香卻解逐人來。
安得身閑頻置酒，攜手，與君看到十分開。少壯相從今雪鬢。因甚，流年羈恨兩相催。

모자 기울여 쓰고 채찍 늘어뜨린 채 손님 보내고 돌아오나니
작은 다리 아래, 흐르는 물에 매화가지 하나.
쇠하고 병들어 봄이 된 것도 기억하지 못했네.
누가 말하기라도 한 건가?
그윽한 향기가 도리어 알고 사람을 좇아오네.

어찌하면 한가로워져 자주 술자리 벌이고
손 끌어
그대와 함께 활짝 핀 꽃 감상할 수 있을까.
젊었을 적 서로 따르다 이제는 귀밑머리 희끗하네.
무엇 때문인가?
흐르는 세월, 나그네의 한이 서로 재촉해서라네.

위 작품은 陸游가 隆興通判으로 부임하던 시절 손님을 전송하고 돌아오다 진현에서 쓴 것으로 상편에서는 흐르는 물에 매화 가지를 보고 봄이 온 것도 알아채지 못한 자신을 안타까워한다. 하편에서는 친구 왕백수와 함께 꽃구경을 하고 싶지만 이제 함께 늙어 타향살이 하는 나그네 신세를 한스러워한다.

막부 해체 후 南鄭을 떠나 成都로 돌아가면서 쓴 <齊天樂·左綿道中> 첫 구절에서 孤店과 塞月을 통해 그의 심리상태를 알 수 있다.

角殘鍾晚關山路，行人乍依孤店。塞月征塵，鞭絲帽影，常把流年虛占。
호각소리 잦아들고 저녁 종소리 울리는 관산길에, 외로운 주막에 나그네 잠시 의탁

하네.

변방의 달 아래 병마 먼지에 채찍 줄과 모자 비치니, 흘러가는 세월을 덧없이 차지하고 있었네

여기서 孤店에 의탁하는 나그네와 병마 먼지에 채찍 줄을 잡고 모자를 쓴 채 변방을 떠나는 모습에서 쓸쓸함과 비록 이루지 못했지만 공업성취에 세월을 흘려보낸 아쉬움을 드러낸다.

이후에도 그의 작품에서 그리움과 외로움에 관한 비유는 지속적으로 출현한다. <烏夜啼·簷角楠陰>에서는 鄉夢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다.

簷角楠陰轉日，樓前荔子吹花。鷓鴣聲裏霜天晚，疊鼓已催衙。

鄉夢時來枕上，京書不到天涯。邦人訟少文移省，閑院自煎茶。

처마 끝 녹나무 그림자 해를 따라 들고, 누각 앞 여지는 꽃잎 날리네,

자고새 울음 속에 맑은 하늘은 저물고, 울리는 북소리는 관아로 재촉 하네

고향 꿈은 때때로 배게 머리로 들어오고, 도성의 편지는 하늘 끝에 닿지 않네.

마을사람들 송사는 적고 문서는 관청으로 이동하니 한가로이 정원에서 홀로 차를 달이네.

그는 타향에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친구들의 편지를 기다리지만 소식은 닿지 않고 무료히 홀로 차를 달인다. 상편의 마당의 정경과 관청에서 울리는 북소리에 입청하는 일상적 이미지와 하편의 송사를 적고 관청으로 이동하고 차를 마시는 한가로운 일과의 반복에서 상대적으로 그의 그리움이 배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는 작품에서 자연이나 동물을 빗대어 그리움과 외로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好事近·羈雁未成歸> 전편을 보자.

羈雁未成歸，腸斷寶箏零落。那更凍醪無力，似故人情薄。

瘴雲蠻雨暗孤城，身在楚山角。煩問劍南消息，怕還成疏索。

묶인 기러기 돌아갈 수 없으니, 현 끊어져 보옥으로 장식한 거문고 망가짐을

아파하네⁵³⁾.

53) 주기평 역해, 『陸游詞』, 학고방, 2015, 104~105쪽.

零落: 부서지고 쇠락하다. 거문고발(雁足)의 배열이 날아가는 기러기와 같아 현이 끊어진 거문고로 날아가지

겨울에 빗은 술은 약하니, 마치 친구의 정 얹어진 듯하네.
瘴雲蠻雨에 외로운 성은 어두운데, 몸은 楚山 끝에 있네.
劍南소식 자주 물으니, 헤어져 멀어짐이 두렵기 때문이네.

여기서 문인은 자신을 묶인 기러기(羈雁)에 빗대어 돌아가고자 하여도 돌아갈 수 없으며 외로운 성(孤城)에 홀로 있음을 한탄한다.

<雙頭蓮·華鬢星星> 상편에서는 병든 천리마에 과거의 대업을 이루지 못해 타향을 전전하는 자신을 비유했다.

華鬢星星, 驚壯志成虛, 此身如寄. 蕭條病驥, 向暗裏. 消盡當年豪氣. ... 생략...

흰 귀밑머리 성성하고, 웅장한 뜻은 헛되이 되어, 이 몸 하나 기대는 것과 같네. 쓸쓸한 병든 천리마는 어두운 곳으로 향하고, 당시 호방하던 기개는 다 사라져 버렸네.

위의 작품에서는 병든 천리마와 대조되게 호방하던 기개가 사라졌음을 말하며 문인의 젊은 시절 뜻한 바를 실현하지 못하고 타향을 전전하는 서글픔을 드러냈다. <感皇恩·小閣倚秋空> 상편에서는 자연물에 의탁해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었다.

小閣倚秋空, 下臨江渚, 漠漠孤雲未成雨. 數聲新雁, 回首杜陵何處. 壯心空萬里, 人誰許.

작은 누각은 가을 하늘에 기대어, 강가 모래를 내려보고, 적막한 쓸쓸한 구름은 비가 되지 못하네.

새로운 기러기 몇 마리 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杜陵은 어디에 있는가. 비장한 마음 만 리에 공허하니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이 작품에서는 누각에서 바라본 강의 경관을 묘사하며 비가 되어 내리지 못하는 외로운 구름(孤雲)에 공업을 이루지 못한 채 타향에 홀로 떨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眞珠簾·山村水館參差路>에서 ‘殘春風絮(늦봄 바람에 날리는 솜)’으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였고, <南鄉子·歸夢寄吳檣>에서 ‘歸夢(돌아가는 꿈)’으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陸游는 관직생활을 시작한 후 오랜 기간 고향에서 멀어져 부임지를 전전해야 했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서 그리움의 대상은

못하는 기러기를 비유한다.

대부분 고향이었고, 타향살이에 대한 한탄이었다.

3. 道家思想

陸游가 65세 되는 해인 淳熙 16년(1189)에 탄핵을 받아 고향인 山陰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시기에 그의 작품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山水田園과 道家遊仙이다. 고향으로 돌아간 뒤 그는 자연과 벗 삼아 유유자적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로 인해 제재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 예를 들어 醉, 雲, 山, 漁父, 水, 江 등의 자연경물이 자주 등장한다.⁵⁴⁾ 이 외에 神仙, 丹藥, 蓬萊山, 九霄, 玉華宮闕, 黃庭經 등과 같은 도가 사상에 입각한 意象들도 출현하게 되는데 이는 문인가 말년으로 갈수록 인간 세상의 덧없음을 깨달으며 이를 작품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이다.

아래는 山陰 유거시기에 창작한 <好事近·歲晚喜東歸>이다.

歲晚喜東歸，掃盡市朝陳迹。揀得亂山環處，釣一潭澄碧。
賣魚沽酒醉還醒，心事付橫笛。家在萬重雲外，有沙鷗相識。
나이 들어 동으로 돌아온 것이 기쁘니, 세상에 남은 흔적 모두 버려 버리네.
겹겹이 산 둘러 쌓인 곳을 골라 맑고 푸른 못에서 낚시하네.
고기 팔아 술을 사 취했다가 다시 깨고, 심사를 橫笛에 기탁하네.
집은 만 겹 구름 밖에 있고 모래섬 갈매기와 친구 하네

여기서 문인은 亂山, 潭, 魚라는 단어로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연과 더불어 사는 전원생활의 유유자적함을 말한다. 아래의 <破陣子·仕至千鍾良易>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仕至千鍾⁵⁵⁾良易，年過七十常稀。眼底榮華元是夢，身後聲名不自知。營營端爲誰。
幸有旗亭沽酒，何妨繭紙題詩。幽谷雲蘿朝采藥，靜院軒窗夕對棋。不歸眞個癡。
벼슬이 천중에 이르기에는 쉬우나 나이 70을 넘기는 것은 매우 드무네.

54) 李廣瑩, 「陸游隱逸詞研究」, 河北大學 碩師學位論文, 2014, 8~14쪽.

55) 주기평 역해, 『陸游詞』, 학고방, 2015, 311~312쪽.

千鍾: 일만 곡(斛), 1곡(斛)은 10말이며 매우 많은 녹봉을 받는 고위 관직을 가리킨다.

눈앞 영화는 원래 꿈이고, 사후에 명성은 알 수가 없네. 험레벌떡거리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인가?

다행히 기정이 있어 술을 사니, 누에 종이에 시를 쓴들 어찌하리. 깊은 산골 덩굴우거진 곳에서 아침에는 약을 캐고, 조용한 정원 높은 창 아래에서 저녁에는 장기를 두네. 돌아오지 않았으면 정말 어리석었을 것이다.

위 작품에서는 타향을 떠들며 관직생활을 이어오다 고향으로 돌아와 한적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매우 잘된 일이라 하고 있다. 그는 상편에서는 고관대작보다 오래 사는 것이 더 어렵고 사후공명도 부질없는 것이라 말하고 있으며 하편에서는 자유롭고 한가로운 전원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또 다른 작품인 <烏夜啼·紈扇嬋娟素月>을 살펴보자.

紈扇嬋娟素月，紗巾縹渺輕煙。高槐葉長陰初合，清潤雨餘天。
弄筆斜行小草，鉤簾淺醉閑眠。更無一點塵埃到，枕上聽新蟬。
비단 부채는 흰 달처럼 곱고, 비단 두건은 연기처럼 나부끼네.
높다란 회나무의 잎이 자라 그들은 적당하고, 비 지나간 맑은 날이네.
붓 놀려 비스듬히 초서를 쓰고, 주렴 말아 걸고 취한 채로 한가로이 잠에 드네. 한 점 먼지도 닿지 않고, 머리맡에 매미소리 들리네

이 작품에는 紈扇, 清潤, 蟬과 같은 제재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곧 청명하고 시원한 여름날의 느낌을 그대로 전해준다. 여기서 문인은 청청한 하늘과 매미 소리를 통해 세속에 대한 미련에서 벗어나 고향에서의 평화로운 삶을 찾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어서 <點絳脣·采藥歸來> 또한 한적하고 여유로운 전원 생활을 표현하고 있다.

采藥歸來，獨尋茅店沽新釀。暮煙千嶂，處處聞漁唱。
醉弄扁舟，不怕黏天浪。江湖上，遮回疏放，作個閑人樣。
약초 캐고 돌아와, 홀로 누추한 주점을 찾아 새로 빚은 술을 샀네.
저녁 안개 천개의 봉우리에 자욱하고, 곳곳에 고기잡는 이들 노랫소리 들리네.
취하여 조각배를 저으니, 하늘에 닿는 물결도 두렵지 않다네.
강호에서 이번에는 여유로우니 마치 한가한 사람 된 듯하네.

采藥, 漁唱, 疏放등을 통해 자유롭고 한적하고 소박한 전원의 삶에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유유자적한 삶을 말하고 있다. 이 시기 작품에서는 위에 세 작품과 같이 유유자적하는 전원의 삶에 만족하며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陸游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유자적함 안에서 지난날에 대한 회한을 표현하기도 한다. <訴衷情·青衫初入九重城>을 살펴보자.

青衫初入九重城, 結友盡豪英. 蠟封夜半傳檄, 馳騎諭幽并.
時易失, 志難成. 鬢絲生. 平章風月, 彈壓江山, 別是功名.
푸른 적삼 입고 처음 구중궁궐에 들어와 교우한 이가 모두 영웅호걸이라네.
납으로 밀봉한 문서를 한밤중에 격문을 보내고, 말 달려 幽州와 并州⁵⁶⁾를 회유하였네.
때는 잃기 쉽고, 뜻은 이루기 어려우며, 귀밑머리 가늘어지네.
풍월을 품평하고 강산을 밟으니, 공명이 따로 없네.

위의 작품 상편에서 青衫(관복), 豪英(영웅호걸), 蠟封檄(밀봉한문서), 馳騎(말을 달려)등을 통해 막부시기에 대의를 위해 노력한 것을 보여주며 하편에서는 때를 잃고 뜻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말을 통해 공업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나타내지만 결국 현재의 무위한 삶에 만족하며 마침내 공명은 현재의 삶이라는 것을 말한다.

<好事近·小倦帶餘醒>에서도 나이가 든 문인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다.

小倦帶餘醒, 澹澹數櫺斜日. 驅退睡魔十萬, 有雙龍蒼壁.
少年莫笑老人衰, 風味似平昔. 扶杖凍雲深處, 探溪梅消息.
조금 게으른 채로 숙취 남아있는데, 은은하게 저무는 해 여러 창으로 비치네, 십만 수마를 쫓아내는 것은 雙龍蒼壁⁵⁷⁾이 있네.
소년이여 노인이 쇠약하다 웃지 말아라, 사람 됨됨이는 이전과 같네. 겨울 눈구름 깊은 곳에 지팡이 짚고, 산골짜기 매화 소식을 찾네.

56) 幽州와 并州, 당시 金이 점령한 지역을 뜻한다.

57) 주기평 역해, 『陸游詞』, 학고방, 2015, 279~280쪽.

雙龍蒼壁: 茶名. 雙龍玉璧(가운데 둥근 구멍이 있는 옥으로 곁에 용문양이 조각되어 있다)모양으로 압축한 차를 가리킨다.

여기서 상편은 醒(숙취), 斜日(저무는 해), 雙龍蒼壁(쌍룡창벽)으로 전원생활의 무료함과 나태함을 표현하고 하편에서는 앞에서 예시로 들었던 작품과 같이 몸은 늙고 쇠약해졌지만 마음은 젊을 때와 같으며 여전히 凍雲(겨울눈구름)을 헤치며 梅(매화)를 찾는다고 했다. 이는 겨울 눈구름 헤치며 매화를 찾듯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추구함을 비유한다.

처음 山陰으로 돌아갔을 때 陸游는 전원에서 즐기는 유유자적한 삶과, 魚, 山, 江, 采 등과 같이 자연을 즐기는 내용의 작품을 노래했지만 무료한 전원생활에 과거 이루지 못했던 공명들과 덧없이 흘러버린 세월을 떠올리며 아쉬워했다. 그런 일련의 상황들이 반복되자 문인은 과거의 공명도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었고, 흘러가는 세월도 잡을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에 따라 그의 작품에는 丹藥, 蓬萊山, 九霄, 玉華宮闕, 黃庭經 등 道家思想과 관련된 단어들도 종종 등장한다.

山陰 유거 시기에 6편에서 道家적 사상을 담은 제재들이 출현하는데 그 중 5편이 ‘好事近’ 調를 따른다.

<好事近·華表又千年>

華表又千年，誰記駕雲孤鶴。

回首舊曾遊處，但山川城郭。

紛紛車馬滿人間，塵土汙芒屨。

且訪葛仙丹井，看岩花開落。

화려한 기둥에 또 천 년이 흘렀으니, 누가 기억하리 구름 물던 외로운 학을

고개를 돌려 옛 노닐던 곳 보니, 다만 산천과 성곽 뿐

어지러운 수레는 인간 세상에 가득하고, 진흙은 짚신을 더럽히네.

다시 갈현이 단약 만들던 우물을 찾아가 바위를 보니 꽃은 피었다가 지네.

상편에서 華表와 孤鶴를 통해 丁令威⁵⁸⁾ 고사를 차용하여 인생의 유한함을 말하고 하편에서는 갈현이 丹藥을 빚었던 곳을 찾아가는 모습을 표현한다.

58) 주임중옥, 김혜명. 『중국역대인명사전』, 이회문화사, 2010.

丁令威: 전한 요동(遼東) 사람. 전설상의 인물이다. 고향을 떠나 영허산(靈虛山)에 들어가서 선도(仙道)를 배워 학이 되어 돌아왔다. 어떤 소년이 활로 쓰려고 하니 화표주(華表柱)에 앉아 “내가 집을 떠난 지 천 년이 되어 돌아왔는데, 성곽은 여전한데 사람들은 변했구나.”라고 말한 뒤 공중을 배회하다 스스로 정령위라 부르면서 천 년 뒤에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다고 한다.

<好事近·秋曉上蓮峰>

秋曉上蓮峰，高躡倚天青壁。誰與放翁爲伴，有天壇輕策。

鏗然忽變赤龍飛，雷雨四山黑。談笑做成豐歲，笑禪龕櫛栗。

가을 아침 연화봉에 올라, 하늘 향해 솟은 푸른 절벽에 높이 섰네.

누가 방옹과 함께 하는가. 천단의 가벼운 지팡이만 있네

종 치는 소리에 갑자기 적룡으로 변하여 날아가니, 우레와 비에 사망 산이 어둡해지
네

풍년이 될 거라 웃으며 이야기하며 선방(절) 스님의 지팡이를 비웃네⁵⁹⁾

상편에 푸른 가을하늘을 배경으로 솟아있는 연화봉과 그 위에 지팡이를 짚고 있는 문인의 모습을 그린다. 하편에서는 지팡이가 용이 되어 날아가고 지팡이로 하여금 풍년이 될 거라 여기며 스님의 지팡이와는 비교할 수 없음을 암시한다.

<好事近·風露九霄寒>

風露九霄寒，侍宴玉華宮闕。親向紫皇香案，見金芝千葉。

碧壺仙露醞初成，香味兩奇絕。醉後卻騎丹鳳，看蓬萊春色。

바람과 이슬은 하늘 높은 곳에서 차가운데, 옥화궁궐의 연회에 배석하네

직접 자황의 향 피운 탁상을 향하고, 천 년 된 황금 영지를 보네.

푸른 병에 신선이슬로 담근 술 막 익으니 향기와 맛 들 다 빼어나네.

취한 후에 문득 붉은 봉황 타고, 봉래산의 봄 색을 바라보네.⁶⁰⁾

상편에서는 玉華宮闕에서 紫皇⁶¹⁾을 만나고 金芝를 보게 됨을 표현하였고, 하편에서는 神仙, 蓬萊山의 봄을 감상하는 문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好事近·揮袖別人間>

揮袖別人間，飛躡峭崖蒼壁。尋見古仙丹灶，有白雲成積。

59) 주기평 역해, 『陸游詞』, 학고방, 2015, 291쪽.

60) 주기평 역해, 『陸游詞』, 학고방, 2015. 296쪽.

61) 주기평 역해, 『陸游詞』, 학고방, 2015. 296쪽.

紫皇: 전설상 태청구궁에 산다고 하는 가장 높은 신선. 태청구궁에는 태황, 자황, 옥황의 세 황제가 있다고 한다.

金芝: 황금색의 영지, 전설상의 仙藥이다.

心如潭水靜無風，一坐數千息。夜半忽驚奇事，看鯨波噉日。

옷소매 휘날리며 인간 세상 이별하고, 깎아지른 낭떠러지 푸른 절벽에 날아오르네

옛 신선 단약 만들던 아궁이 찾아가니, 흰 구름 겹겹이 쌓여있네.

마음은 못 물 같아 고요하며 바람도 없나니 한 번 앉아 수천 번을 호흡하네.

고래의 파도와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았네⁶²⁾

상편에서 세속과 이별하여 깊은 산으로 들어가 단약을 만들던 아궁이를 찾아가고 하편에서는 세속과 떨어져 수련하는 중 기이한 경험을 하며 득선의 경지에 이른 모습을 표현한다.

<好事近·混跡寄人間>

混跡寄人間，夜夜畫樓銀燭。誰見五雲丹灶，養黃芽初熟。

春風歸從紫皇遊，東海宴陽穀。進罷碧桃花賦，賜玉塵千斛。

인간 세상에 섞여 살며, 밤마다 화려한 누각에서 은촉을 밝혔네.

누가 보았는가 오색구름 속 단약 만드는 아궁이에 노란 싹을 정련해 이제 막 익은 것을.

춘풍을 타고 돌아가 자황을 따라 노닐고, 동해의 양곡에서 연회를 벌이네.

<푸른 복숭아 꽃>⁶³⁾ 부를 올리니, 천 곡의 옥가루를 하사해 주시네.⁶⁴⁾

상편에서는 화려한 누각에서 세속적인 삶을 살았지만 후에 단약을 찾는 모습으로 신선 세계의 동경을 표현한다.

<一叢花>

62) 주기평 역해, 『陸游詞』, 학고방, 2015, 299쪽.

鯨波: 고래가 일으키는 커다란 파도, 전설상 동해의 신선으로 고래를 타고 다녔다는 安期生의 고사를 차용하였다. 진시황이 동해로 놀러갔을 때 그와 사흘 밤낮을 이야기하고 황금과 璧玉천만을 하사하였으나 모두 버려두고 떠났다고 전해진다.

63) 주기평 역해, 『陸游詞』, 학고방, 2015, 300~301쪽.

碧桃: 신선이 먹는 푸른 복숭아. 전설상 西王母가 漢武帝에게 주었다고 하는 仙桃. 『漢武內傳』에 후에 서왕모가 내려와 복숭아를 일곱 개를 꺼내어 자신이 두 개를 갖고 다섯 개를 무제에게주니 무제가 씨를 남겨 앞에 두었다. 서왕모가 '이것으로 무엇을 하려 하십니까?'라 묻자, 무제는 '이 복숭아를 심으려 합니다.'라 하였다. 서왕모는 웃으며 '이 복숭아는 삼천 년에 한 번 열매가 열리니 인간 세상에 심을 것이 아닙니다.'라 하였다.

64) 주기평 역해, 『陸游詞』, 학고방, 2015. 300쪽.

仙姝天上自無雙，玉面翠蛾長。黃庭讀罷心如水。閉朱戶。愁近絲簧。窗明幾淨。閑臨唐帖，深炷寶奩香。

人間無藥駐流光，風雨又催涼。相逢共話清都舊，歎塵劫，生死茫茫。何如伴我，綠蓑青篛，秋晚釣瀟湘。

아름다운 선녀, 하늘에서도 비길 바가 없나니. 옥 같은 얼굴에 푸른 눈썹은 기다라네.

『黃庭經』 다 읽으니 마음은 물처럼 평안하네. 붉은 대문 닫고, 거문고와 피리를 멀리 한다네.

창은 밝고 책상은 정갈한데 한가로이 당인의 서첩 마주하며 아름다운 갑 속의 향을 오래도록 태우네.

인간세상, 흐르는 세월 멈출 약이 없으니, 비바람은 또 서늘함을 재촉한다네. 서로 만나 함께 옛날 신선 세계를 이야기하고, 인간 세상의 재난과 삶과 죽음의 아득함을 한탄하네.

어떠한가, 나와 함께 초록 도롱이와 푸른 샷갓 쓰고 가을 저녁에 소수와 상수에서 낚시나 하는 것이.⁶⁵⁾

상편에서는 아름다운 선녀의 모습을 묘사하며 신선 세계에 대한 문인의 지향을 나타내고 정갈한 책상에서 서첩을 보고 향을 피우는 행동으로 선선을 향한 심신 수양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

하편에서는 세월의 흐름을 붙잡을 수 없어 비바람에 쉬이 늙어버리는 인간의 삶을 말하고, 지인과 함께 신선 세계에 대해 이야기 하며 유한한 인간의 삶을 한탄한다.

마지막 구에서 세속에서 벗어나 낚시나 하며 무위자연하며 살자 권유한다.

초기 陸游의 작품에서 빈번하게 사용된 제재들은 鼓角, 邊城, 角聲, 烽火, 野帳, 秋, 殘夢, 山驛, 淒涼, 燈昏 등이 있다. 이러한 제재는 그 당시 金과의 대치로 憂國, 비분강개, 북벌, 중원수복을 염원하는 문인 작품에 비장미를 더했다.

그 이후 북벌의 꿈이 좌절되어 각지를 떠돌며 지방 관리직을 행할 때에는 他鄉客, 孤店, 塞月, 鄉夢, 羈雁, 孤城, 病驢, 孤雲, 殘春風絮, 歸夢 등과 같은 제재를 이용해 고향과 멀어져 떠도는 자신의 외로운 심정을 여러 제재들에 투영하여 중원수복 실패에 대한 후

65) 주기평 역해, 『陸游詞』, 학고방, 2015, 303쪽 참조.

회와 안타까움. 그때 같이 했던 이들을 그리워하며 쓴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다.

陸游는 귀향 후 쓴 작품에는 한적한 시골마을에서 약초를 캐고, 낚시를 하고, 술을 마시는 등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한다. 만기 山陰 유거 시기에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山水田園과 道家仙遊 작품이다. 이때 陸游는 雲, 山, 漁父, 水, 江 등의 제재로 고향에서의 한적하고 여유로운 삶을 표현한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陸游는 잠시 한적한 시골생활을 즐기다가도, 지난 날 공업을 이루지 못한 회한과 조정애 대한 심려로 고뇌한다. 이런 작품들은 보통 상편에는 靑衫, 馳騎, 功名, 匹馬, 關河, 貂裘, 狼烽 등의 제재를 이용하여功名수립의 열망을 드러내고, 전장을 누비던 과거를 회상한다. 하편에는 流年, 虛度, 鬢秋, 淚 등을 통해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안타까워한다. 이후 陸游는 작품에서 세월을 잡을 수 없고, 인간의 삶은 유한함을 인정하며 도가선유사상 기반의 작품을 쓴다.

4. 季節

陸游詞의 자연현상별 제재를 일괄하면 직접적인 계절 언급 외에도 매미(蟬), 단선(團扇), 정월(元夕) 등을 포함하여 陸游의 詞 총 140여 편 중 봄을 상징하는 제재는 32편 43회, 여름은 3편 5회, 가을은 9편 11회, 겨울은 6편 6회 등장한다.

陸游詞 140여首 중 봄을 상징하는 제재는 총 32首 43회에 걸쳐 활용되었으며 이것은 다른 계절적 제재보다 매우 많은 편이다. 따라서 활용 방식에서도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봄의 풍경을 묘사하는 것과 봄에 제재를 활용해 문인의 심경이나 인물을 비유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작품이 단순히 풍경만 묘사하기보다는 봄의 풍경에 문인의 심경을 표현하거나 인물을 비유하는 형태로 운용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집중해 작품을 분석하려고 한다. 여름을 상징하는 제재는 총 2首 3회 운용되었는데 봄의 제재 활용과 비교해보면 그 운용횟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주로 陸游의 심

경이 배제된 채 여름의 경관 묘사에 치중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학작품에서의 봄의 이미지라 하면 만물의 소생 혹은 추운겨울을 견딘 새로운 시작, 희망과 관련된 의미가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陸游의 詞에서 봄은 세월의 흐름과 과거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나그네 신세의 외로움을 표현한다. 처음으로 살펴볼 예는 陸游의 <釵頭鳳·紅酥手>이다.

紅酥手，黃滕酒。滿城春色宮牆柳。東風惡，歡情薄。一懷愁緒，幾年離索。錯錯錯。
春如舊，人空瘦。淚痕紅浥鮫綃透。桃花落，閑池閣。山盟雖在，錦書難托。莫莫莫。
붉고 고운 손, 노란 포장의 술 따를 때
온 성에 봄 색은 가득, 궁성 벽 버드나무는 하늘거렸네.
동풍이 모질어 즐거운 정이 얇아졌으니
가슴가득 시름 간직한 채
몇 년을 헤어져 지냈던가.
잘못됐네, 잘못됐네, 잘못됐네.

봄은 옛날과 같건만 사람은 공연히 야위었고,
눈문은 어여쁜 얼굴 적시고 손수건에 스미네.
복숭아꽃은 지고 못 가 누각은 쓸쓸한데
영원히 함께 하자던 맹세는 그대로건만
그리움의 편지는 보내기가 어렵구나.
그만두자, 그만두자, 그만두자!

이 작품은 현재 전해지는 陸游의 詞 중 가장 최초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심원에서 전처 唐琬을 만난 후 쓴 것으로 상편에서 春色(봄기운)이 만연한 심원의 풍경을 묘사하며 唐琬과 만난 그의 심리상태를 나타내고, 하편에서는 春如舊(봄은 예전과 같은데)라 하며 공연히 야윈 唐琬의 모습을 대비시킨다. 이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자던 맹세는 그대로지만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은 두 사람의 상황에 ‘莫(그만두자)’라는 말로 체념하고 있다.

鳩雨催成新綠，燕泥收盡殘紅。春光還與美人同。論心空眷眷，分袂卻匆匆。

비둘기 울어 내리는 비는 새로운 푸르름을 재촉하고,
 제비와 진흙은 남은 꽃잎을 거두어버리네.
 봄빛은 아름다운 사람과 같나니
 서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헛되이 애뜻하기만 하고
 헤어지는 것은 오히려 급하기만 하네.

<臨江仙·鳩雨催成新綠>에서 陸游는 봄이 저물어 가는 경관을 묘사하며 떠나는 봄(春光)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상편에서는 비에 신록이 우거지고 꽃잎마저 시들어 떨어지는 모습을 묘사하며 봄을 사랑하는 사람(春光還與美人同)에 비유하여 붙잡아 둘 수 없음을 아쉬워한다.

風卷征塵，堪歎處、青驄正搖金轡。客襟貯淚，漫萬點如血，憑誰持寄。佇想豔態幽情，壓江南佳麗。春正媚，怎忍長亭，匆匆頓分連理。

目斷淡日平蕪，望煙濃樹遠，微茫如薺。悲歡夢裏。奈倦客、又是關河千裏。最苦唱徹驪歌，重遲留無計。何限事，待與丁寧，行時已醉。

바람에 길의 먼지는 말리고
 깊이 탄식하는 곳에 청춘마는 금 고삐를 흔드네
 나그네 가슴엔 눈물만 쌓이나니
 부질없는 만 점 피 같은 눈물을
 누구에게 전할 건가.
 아름다운 모습과 깊은 정 오래도록 생각하나니
 강남의 빼어난 경치조차 압도한다네.
 봄은 아름답기만 한데
 어찌 견디리, 장정에서
 홀연 황망히 그대와 이별하게 됨을.

석양의 잡초는 눈 끝까지 펼쳐져 있고.
 짙은 안개 속 먼 곳의 나무는
 냉이처럼 작고 아득하네.
 슬프고 즐거운 꿈속에서

어찌하리, 게으른 객이 되어
 또다시 천 리 밖 변경에 있게 됨은,
 이별의 노래 부르는 것이 가장 힘들어
 떠날 길 헤아리지도 않고 다시금 지체한다네
 수많은 일들을
 당부하고 당부하다
 떠날 때는 이미 취해버렸다네.

<雙頭蓮·風卷征塵> 상편에서는 春正媚(봄은 아름답기만 한데)하며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한 후 ‘匆匆頓分連理.(홀연 남녀간의 애정이 끊기니)’라 하며 풍경과 상황을 대조시켜 이별의 슬픔을 강조한다. <一叢花·尊前凝佇漫魂迷>의 상편도 크게 다르지 않다.

尊前凝佇漫魂迷, 猶恨負幽期. 從來不慣傷春淚, 爲伊後、滴滿羅衣.
 那堪更是, 吹簫池館, 青子綠陰時.
 술동이 앞에 우두커니 선채 멍하게 있지는 말지니
 다만 은밀한 약속 저버림을 한스러워 하네.
 이제껏 봄 슬퍼하는 눈물 흘리지 않았거늘
 그대 때문에 비단옷 가득 눈물 떨어구네.
 또 어찌 견디리,
 연못 가 누각에서 피리 불고 녹음 속에 푸른 열매 생겨나는 때를.

‘不慣傷春淚(봄에 눈물 흘리지 않았건만)’이라고 하며 약속을 저버린 그대 때문에 ‘滴滿羅衣(비단 옷 눈물로 적시네)’라고 표현한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에 홀로 외로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위의 작품들은 모두 사랑하는 이와 이별을 봄이라는 제재와 대조시켜 외로움과 슬픔의 이미지를 극대화 한다.

두 번째로는 고향 혹은 떠난 이의 대한 그리움을 봄을 상징하는 제재로 나타내기도 한다.

陌上簫聲寒食近, 雨過園林, 花氣浮芳潤. 千裏斜陽鍾欲暝, 憑高望斷南樓信.

海角天涯行略盡，三十年間，無處無遺恨。天若有情終欲問，忍教霜點相思鬢。

발 두렁 위로 통소소리 들리니 寒食이 가까이 왔고, 비 지나간 정원 수풀에, 꽃기운 피어올라 향기롭네. 천리의 석양은 종소리에 저물어 가는데, 높은 곳에 기대어 끊어진 남쪽편지 기다리네.

바다 끝과 하늘가를 지나왔으니, 삼십년 세월에 회한 없는 곳이 없네. 하늘이 정이 있다면 끝내 묻고 싶나니, 차마 이 그리움의 귀밑머리를 서리에 얼룩지게 하는가.

위의 작품은 <蝶戀花·陌上簫聲寒食近>으로 陸游가 남정으로 떠날 때 小益을 떠나며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편은 비오는 한식날의 정경과 풍광을 묘사하는데 마지막 구에 ‘憑高望斷南樓信(높은 곳에 기대어 집안 소식 기다리네)’ 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긴 타향살이 중 한식날을 겪는 외로움을 드러내면 하편에서는 ‘三十年間，無處無遺恨(30년 세월에 회한 없는 곳 없네)’와 마지막 구 ‘忍教霜點相思鬢(이 그리움의 귀밑머리를 서리에 물들게 하네)’를 통해 헛되이 지나는 세월을 아쉬워한다.

樽前花底尋春處，堪歎心情全減。一身萍寄，酒徒雲散，佳人天遠。那更今年，瘴煙蠻雨，夜郎江畔。漫倚樓橫笛，臨窗看鏡，時揮涕、驚流轉。

花落月明庭院。悄無言、魂消腸斷。憑肩攜手，當時曾效，畫梁棲燕。見說新來，網縈塵暗，舞衫歌扇。料也羞憔悴，慵行芳徑，怕啼鶯見。

술동이 앞, 꽃 아래 봄을 즐기는 곳에서
마음의 정 모두 사그라짐을 탄식하나니.

이 몸은 부평초에 기탁하고
술친구들은 구름처럼 흩어지고
아름다운 사람은 하늘 멀리 있다네.

계다가 올해는
남방의 연기와 비가
야랑의 강가에 자욱하네.

헛되이 누각에 기대어 피리 불고
창가에 서서 거울 보며
때때로 눈물을 뿌리고

흐르는 세월에 놀란다네.

꽃 지고 달 밝은 정원에서
고요히 한마디 말도 없이
혼은 녹고 간장은 끊어졌네.
어깨 기대고 손 끌며
그 때는 아름다운 들보에 깃들인
한 쌍의 제비 같았지.
새로이 들려오는 말에
거미줄 끼고 먼지 자욱하다 하네,
춤추던 적삼, 노래하던 부채에.
헤아려보면 초췌한 모습 부끄러워하고
향기로운 길 걷는 것도 귀찮아하며
지저귀는 피꼬리 보는 것도 두려워하겠지.

위의 작품인 <水龍吟·樽前花底尋春處> 상편에서는 꽃 아래 술을 마시며 봄을 즐기면서도 ‘마음의 정 사그러진다(心情全減)’고 말하며 같이 기탁하던 친구들 모두 뿔뿔이 흩어져 즐길 수 없다 밝힌다, 이어 누각에 기대어 흘러 거울에 늙어버린 모습을 비추며 회한의 눈물을 흘린다. 봄 풍경을 즐기지만 역설적이게도 친구들이 그리워 마음은 즐겁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鵲橋仙

茅簷人靜，蓬窗燈暗，春晚連江風雨。林鶯巢燕總無聲，但月夜、常啼杜宇。
催成清淚，驚殘孤夢，又揀深枝飛去。故山猶自不堪聽，況半世、飄然羈旅。

초가집 처마에 인적은 고요하고
속 창에 등불은 어둑한데
봄 저무는 강 가득 비바람 몰아치네.
숲의 앵무새와 둥지의 제비는 아무런 소리도 없고
달 뜬 밤이면 늘 두견새만 울어대네.

맑은 눈물 자아내게 재촉하고
외로운 꿈에서 놀라 깨어나게 하더니
다시금 깊은 가지 찾아 날아가 버리네.
고향에서도 차마 들을 수 없었거늘
하물며 반평생 떠도는 나그네 신세임에라.

위의 작품에서는 ‘봄 저무는 강 비바람(春晚連江風雨)’으로 객지의 고달픔을 표현하며
하편에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눈물 흘리고 타향을 떠도는 자신의 신세를 안타까워한
다.

다음 陸游의 <烏夜啼·紈扇嬋娟素月>에서 여름의 제재는 紈扇, 雨餘, 蟬으로 표현된다.

紈扇嬋娟素月, 紗巾縹緲輕煙.
高槐葉長陰初合, 清潤雨餘天.

弄筆斜行小草, 鉤簾淺醉閑眠.
更無一點塵埃到, 枕上聽新蟬.

비단 부채는 흰 달처럼 아름답고, 비단 두건은 가벼운 연기처럼 하늘거리네.
높다란 회나무의 잎이 자라 그늘은 적당하고, 비 지나간 맑고 촉촉한 날이네

붓 놀려 비스듬히 초서를 쓰고, 주렴 말아 걸고 약간 취한 채 한가로이 잠에드네.
한 점 먼지도 이르지 않고, 머리맡엔 새로이 매미 소리 들리네.

이 詞는 문인이 山陰 유거 시기에 쓴 작품으로 상편에서는 등근 비단 부채와 회나무
그늘과 막 비 그친 맑고 촉촉한 날씨를 통해 시원한 여름을 섬세하게 그려냈다. 하편에
서는 몇 잔술에 취해 한가로이 낮잠 자는 山陰의 생활을 그리며 새로이 들리는 매미소리
를 통해 세속에 대한 미련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삶을 영유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또
다른 작품 <烏夜啼·園館青林翠樾>을 살펴보자.

園館青林翠樾, 衣巾細葛輕紈. 好風吹散霏微雨, 沙路喜新幹.

小燕雙飛水際，流鶯百囀林端。投壺聲斷彈棋罷，閑展道書看。

정원과 관사는 푸른 숲과 푸른 그늘 드리우고, 옷과 수건은 가는 갈포와 얇은 비단
이네

매마침 불어온 바람이 훑날리는 안개비를 거두니, 모래 길은 기쁘게도 금방 마르네.

작은 제비는 물 위에서 쌍쌍이 날고, 피꼬리는 숲 꼭대기에서 시끄럽게 울어대네.

투호 소리 그치고 탄기 놀이 끝났으니 한가로이 도술책이나 펼쳐볼까

상편에서 ‘정원과 관사는 푸른 숲과 푸른 그늘 드리우고(園館靑林翠樾，衣巾細葛輕紈)’
라고 하며 靑林을 통해 푸른 여름의 광경을 묘사했고, 하편에서는 고요함과 시끄러움의
대비를 통해 제비의 움직임과 피꼬리의 소리를 생동감 있게 그려내었으니, 놀이와 여흥
을 즐기는 작자의 여유로운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이 외에도 <昭君怨·晝永蟬聲庭院> 상
편에서는 ‘낮은 길고 매미 소리는 정원에 가득한데, 사람은 등근 부채 흔드는 것도 귀찮
아지네(晝永蟬聲庭。人倦懶搖團扇)’라며 집 안에서의 여름날의 일상을 표현했다.

가을을 상징하는 제재는 9편에서 11차례 언급되는데 歲方秋(바야흐로 가을이다), 秋色
(가을색), 秋霖(가을장마), 秋(가을), 元夕(원석), 重陽(중양절), 暮秋(늦가을), 秋光(가을
빛), 秋曉(푸른 가을 하늘), 秋風(가을바람) 등을 통해 쓸쓸함, 아쉬움, 처연한 가을 정경
들을 표현해내었다. 陸游의 <滿江紅·危堞朱欄>을 살펴본다.

危堞朱欄，登覽處一江秋色。

人正似征鴻社燕，幾番輕別。

繾綣難忘當日語，淒涼又作他鄉客。

問鬢邊都有幾多絲，眞堪織。

楊柳院，秋千陌。

無限事，成虛擲。

如今何處也，夢魂難覓。

金鴨微溫香縹渺，錦茵初展情蕭瑟。

料也應紅淚伴秋霖，燈前滴。

높다란 성벽 위 붉은 난간, 올라와 바라보니 온 강이 가을 색이네.
사람은 길 떠나는 기러기와 사직에 날아드는 제비처럼, 몇 번이고 가벼이 이별한다
네.

이별을 아쉬워하며 헤어지던 때의 말을 잊기도 어렵건만, 서글프도다, 또 다시 타향
의 나그네가 되어 버렸네.

묻나니, 깃가에 얼마나 많은 흰 실이 있는가? 참으로 베라도 짤 수 있겠구나.

버드나무 늘어진 정원과 그네 타던 거리.

수많은 일들이 헛되이 내던져 버렸네.

지금은 어디에 있나, 꿈 속 영혼으로도 찾기 어렵네.

오리 향로는 아직 식지 않고 향은 아득히 피어오르는데, 비단 이불 막 펼 때 마음은
쓸쓸하기만 하리.

생각건대 붉은 눈물이 가을 장맛비에 짝하여, 촛불 앞에서 방울져 떨어지겠지.

상편에서는 진강의 성벽에 올라 가을의 경관을 바라보며 가을기러기와 봄제비처럼 잣
은 이별을 개탄하고, 하편에서는 진강에서의 기억과 수많은 추억들이 이미 지난 일이 되
었음을 나타내며 이를 秋色과 秋霖의 제재를 통해 가을빛과 가을비속에 처량한 문인의
심태를 표현했다.

겨울을 상징하는 제재는 6편 6회 운용되는데, 晚寒(늦겨울), 乍雪(잠깐 내리는 눈)등으
로 표현된다.⁶⁶⁾ 예를 들어 <滿江紅·夔州催王伯禮侍禦尋梅之集>에서는 ‘성긴 꽃 그윽한
향기에 늦겨울 깊어가는 시름 어쩔할 수 없나니(疏蕊幽香, 禁不過, 晚寒愁絕.)’라고 표현
하는데 이는 늦겨울의 막 핀 매화에 본인을 투영하여 자신의 처지를 말하며 나그네의 시
름을 표현한다.

陸游의 작품은 단순히 시기로만 구분해서 분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그의
憂國에 대한 인식은 詞 작품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詞의 특성상 자연과 경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 또한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시
기별 구분이 아닌 문인의 제재별 분류를 통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66) <滿江紅·夔州催王伯禮侍禦尋梅之集> 중 ‘晚寒(늦겨울)’, <清商怨·葭萌驛作> 중 ‘乍雪(잠시 내리는 눈)’,
<夜遊宮·宮詞> 중 ‘獨夜寒(홀로있는 밤 추위)’, <南歌子·送周機宜之益昌> 중 ‘下雪灘(눈내린 언덕)’, <夜遊
宮·記夢寄師伯渾> 중 ‘雪曉(눈 내린 새벽)’, <破陣子> 중 ‘餘寒(남은 한기)’, <風流子·一名內家嬌> 중 ‘水浮
微凍(물에 작은 얼음 뜨고)’ 으로 겨울을 상징하는 제재는 총 6작품 6회 운용된다.

그는 완약하고 유희적인 詞 문학을 영유하면서도 남송 초기 시대의 비극을 담은 제재들도 운용하였다. 또한 시대의 비극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도가의 무위자연의 제재를 운용하기도 했다. 계절적 제재 운용에서도 봄의 쓸쓸함을 조국을 잃은 비애에 담거나, 여름의 자연경물을 제재로 운용하여 한적한 山陰 생활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의 詞에 대한 인식은 그의 시대정신과 감정을 다양한 제재로 투영하여 ‘詞의 詩化’를 이끌어냈다.

IV. 結論

본 논문은 宋代 사대부들의 詞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고 陸游의 詞 창작에 대한 인식과 당대 사대부들의 인식을 비교하며 陸游의 작품에서 그의 詞인식이 어떤 제재를 통해 표현되는지를 분류, 분석하였다.

사는 민간 문예 양식으로 北宋 초기에 ‘여흥을 즐기는 문학’이라는 인식에서 주제와 형식의 확장을 거쳐 北宋 중기 ‘以詩爲詞’적 경향과 本色論의 대립으로 이어지며 후기에는 文雅性을 중시하게 됨으로써 그것의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하게 되었다. 이후 金의 침략이라는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詞의 전통이라 여기는 완약한 풍격의 작품들은 내용적인 면에서 蘇軾의 豪放한 풍격으로 전환되어 다수 등장했다. 이후 金과의 대립이 소강상태가 되고 경제가 발달하며 이전에 유희성이 짙고 격률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결국 北宋초기에서 南宋을 거치며 사대부들의 詞에 대한 인식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오락성뿐만 아니라 사대부의 시대적 소임을 담아내기에 이른다.

陸游는 본인의 詞集인 『放翁詞』에서 詞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표출했으나 말년에 그가 쓴 『渭南文集』 <跋花間集>에서는 詞에 대한 부정보다는 당대 詞를 대하는 문인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유가적 대의명분과 사대부로서의 소명의식을 기본으로 詞를 창작해야한다 역설하였다. 또한 그의 호방할 필치는 그의 시와도 같아 ‘破驛(낡은 역사)’, ‘貂(담비가죽갑옷)’⁶⁷⁾, ‘戰鼓(전쟁의 북소리)’⁶⁸⁾, ‘塞(변방)’, ‘鞭聲(채찍 소리)’⁶⁹⁾, ‘燒大藥(단약을 제조하다)’⁷⁰⁾, ‘神仙(신선)’⁷¹⁾, ‘雁(기러기)’⁷²⁾, ‘客(손님)’, ‘重陽(중양절)’⁷³⁾등 시에 쓴 제재를 詞에도 적용했다. 이는 陸游가 사를 창작할 때 시어와 사어를 동일하게 사용하며 ‘以詩爲詞’ 경향의 글쓰기를 시도하며 ‘詞의 詩化’를 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7) 陸游, 『劍南詩稿』 권3, <三月十七日夜醉中作>
68) 陸游, 『劍南詩稿』 권3, <胡無人>
69) 陸游, 『劍南詩稿』 권7, <題醉中所作草書卷後>
70) 陸游, 『劍南詩稿』 권5, <對酒歎>
71) 陸游, 『劍南詩稿』 권30 <看鏡>
72) 陸游, 『劍南詩稿』 권12, <聞雁>
73) 陸游, 『劍南詩稿』 권13, <九月三日泛舟湖中作>

陸游은 인생 전반에서 憂國, 望鄉, 道家仙遊, 山水田園을 반영한 제재를 이용하여 사를 창작하였다. 이는 그가 살던 시대적 배경의 영향이 크다.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은 망국의 관료였던 陸游은 작품을 통해 비분강개를 표현했다. 실제 막부 진영까지 갔었던 그는 결국 화친을 맺은 조정을 비판하며 작품을 썼으나 오히려 화친파의 음모로 좌천되어 지방관으로 떠돌게 된다. 이 시기 그는 잦은 발령과 오랜 타향살이로 교우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를 창작하기도 했다. 이후 고향으로 돌아온 뒤 山陰에 기거하며 산수 자연과 도가사상 기반의 작품을 창작하였는데, 당시 ‘憂國’과 관련한 작품들 역시 시대의 비극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宋代의 사는 격변하는 사회 속에서 각각 ‘以詩爲詞’와 ‘別詩一家論’을 주장했던 완약풍과 호방풍 등 다양한 사풍 속에서 문학적 성과를 거두었다. 노래하는 민간문예에서 사대부들의 손을 거쳐 하나의 문학 장르로 인정받은 것이다. 그 중 陸游의 詞는 悲憤慷慨와 비판으로 시대의식을 담아 이전 완약한 사가 전통으로 여겨지던 사단과 달리 자신만의 호방한 필치로 작품을 썼다.

본 논문은 당대 문인들은 詞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陸游의 詞 창작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고찰하고 작품에서 사용한 제재들을 어떻게 운용했는지 연구하였다.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당대 詞에 대한 인식은 초기에는 유희성이 짙었으나 북송 후기로 갈수록 ‘以詩爲詞’ 경향의 글쓰기를 지향하며 저속한 문학이라는 인식도 점차 달라졌다. 陸游은 초기에 사에 대하여 부정적이었으나 이후 시의 제재를 사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며 시를 짓는 것처럼 사를 지으며 ‘詩의 詞化’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추후 ‘以詩爲詞’의 구체적인 면모를 확인하고 그 문학적, 문화적 의미를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參 考 文 獻

- 夏承燾·吳熊和 著, 『放翁詞編年箋注』, 상해고적출판사, 1981.
- 김학주 著, 『중국문학사』, 신아사, 1989.
- 김학주 著, 『중국문학의 이해』, 신아사, 1989.
- 이치수 著, 『육유시선』, 문이재, 2002.
- 임종욱·김해명 著, 『중국역대인명사전』, 이회문화사, 2010.
- 이치수 著, 『陸游詞選』, 지식을만드는지식, 2011.
- 주기평 著, 『육유시선』, 지식을만드는지식, 2011.
- 陳植鏞 著, 임준철 譯, 『중국시가의 이미지』, 한길사, 2013.
- 주기평 역해, 『陸游詞』, 학고방, 2015.
- 주기평, 「陸游詞의 주제 및 창작관에 대한 고찰 - 시(詩)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국문학』 제30권, 1998.
- 강길중, 「北宋時期 社會經濟 發展과 商業」, 『역사문화연구』 27호, 2007.
- 이치수, 「문학(文學) : 陸游(陸遊) 사(詞)의 대비(對比) 수사법(修辭法)」, 『중국어문학』 제57권, 2011.
- 김규선, 「陸游의 愛國意識과 시적 형상화 고찰」, 『동양고전연구』 제48집, 2012.
- 程千帆 著·김지영 譯, 「韓愈의 以文爲詩에 대한 논평」, 『중국어문논역총감』 32호, 2013.
- 주기평, 「陸游詩詞比較研究」, 『중국어문학회』 제84권, 2015.
- 나련침 著·김지영 譯, 「한유의 詩文合一과 문장 文章流弊에 대한 논의」, 『중국어문논역총간』 40호, 2017.
- 박홍준, 「北宋 詞學의 展開와 詞體 觀念의 形成」, 『中國學報』 제85집, 2018.
- 서성, 「신기질(辛棄疾)의 남조(南朝)에 대한 역사적 기시감과 문학적 형상화」 『중국문화연구학회』 42호, 2018.
- 박홍준, 「북송사(北宋詞)의 민간문학(民間文學) 특징(特徵)과 그 의미(意味)」, 『中國學報』 98권, 2019.

- 주기평, 「육유시가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楊慧琴, 「陸游詞研究」, 貴州大學 석사학위논문, 2009.
- 권명숙, 「중국 고전시가 속 悲秋 감성의 사회화 과정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송인주. 「陸游 茶詩를 통한 宋代 茶文化 研究」.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楊慧琴, 「陸游詞研究」, 貴州大學 碩師學位論文, 2009.
- 李廣瑩, 「陸游隱逸詞研究」, 河北大學 碩師學位論文, 2014.
- CNKI 中國知網, <http://www.cnki.net/>.
- 百度漢語 滿庭芳·山抹微雲,
<https://hanyu.baidu.com/shici/detail?pid=6451ae2ea900478c99606a094e7b2d8e&from=kg0>
- 風骨古詩文園地 <http://www.bojiukj.com/>.
- 查字典, https://www.chazidian.com/r_ci_159d48a4d0279f9edab64d153b58fd2a/ .
- 國學大師, 2020.06, <http://skqs.guoxuedashi.com/3035z/1845969.html> .

Historical review of Luyou's Ci and consideration of Materials application

Kang Seung Heui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Academic advisor: Dong-Chun Lim)

【ABSTRACT】

This paper compared the change in perception about Ci by Lu you a writer in Song Dynasty and the noblemen of the time, and classified and analyzed through what materials his perception about the Ci was expressed in the works of Lu you.

Accordingly, the research was conducted in the following manners.

First, this study considered the perception revealed in the works and critics by writers in Southern Song and Northern Song, and Lu you's perception about Ci.

Second, the materials utilized in Ci by Lu you are classified into states of affairs, loneliness, homesickness, Taoist thoughts and season in order to research how his perception on Ci was projected.

As a result,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the perception on Song'Ci focused on elegance from the awareness of 'Shi yu(詩餘)' during Northern Song period but recognized as independent

literature style. In this period, creating Ci by 'yi-shi-wei-ci(以詩爲詞) competed with 'bie-shi-yi-jia(別詩一家) theory. Writers created patriotic works due to foreign invasion in the period of Southern Song while showing double attitude only for the entertainment and entertainment nature of Ci.

However, Lu you pursued 'poetic treatment of Ci by emphasizing Ci should contain the role of literature and historical mission of noblemen as well as entertainment and entertainment nature based on the missions as noblemen.

Second, Lu you revealed the emotion on patriotism through the materials containing tragedy in the early period of Southern Song while writing weak and playful Ci literature. In addition, he realized the limit of human ability due to the tragedy of period and operated Taoist materials of letting nature be.

In addition, he projected the writer's emotion in the materials using seasons.

Lu you's perception on Ci projected his time spirit and emotion into various materials and drew 'poetic treatment of Ci'.

Through this result, the meaning of literature can be defined in that Lu you pursued 'poetic treatment of Ci' by reflecting the time spirit of Ci which existing poets had recognized in terms of entertainment nature.

Key words: Lu you, Song'Ci, yi-shi-wei-ci, Materials, patriotic poet, poem awareness,